

12. 탕정면

가. 탕정면 마을 1 (갈산리 1구)

1) 조사일정

1993. 12. 17., 황재영 기록

오전 10시 정도에 숙소를 떠나 11시에 갈산 1구에 있는 임광빈 이장택으로 갔다. 마침 임광빈 씨와 그 부인, 그리고 손님으로 온 공수명 씨가 있어서 <구령리 유래>, <갈산리 유래>, <용두리 유래>, <피꼬리성 이야기>, <할미바위> 등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조사자 중에 이 곳 출신이 있는 것을 알아보고는 매우 기뻐하며 점심을 대접해 주었다. 또 이경렬 씨를 추천해 주어, 오후 1시경 이경렬 씨 택을 방문했으나 '한학(漢學)'을 한 분이라 이런 민담, 전설 등을 하찮게 여겨 좀체로 말을 하려 하지 않았다. 조사자들 중에 한 명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정영진 씨가 있어 찾아보기로 하고 2시경에 도착했으나 부재중이었고 부인 남연우 씨와 그 동서들이 몇 명 있었다. 남연우 씨가 동네 여기 저기에 전화를 걸어 열서너 명의 할머니들을 만나게 해 주었다. 그 중에는 사전 조사 때 만났던 정경렬 할머니도 있어 <고래를 잡아 몰살당한 가족>, <물사람 살려주기> 등을 이야기해 주었고, <청댕이 고개>, <은석산 이야기>, <지렁이국 먹고 눈 뜬 이야기> 등등 여러 할머니들이 돌아가며 이야기를 해주었다.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이야기가 쏟아졌다. 오후 5시경에 정영진 씨 택을 나와 숙소로 향했다.

2) 마을 개관

337-840 충청남도 아산군 탕정면 갈산리 1구

1993. 12. 17., 한혜인 조사

갈산리 1구는 그다지 오래된 마을은 아니다. 6.25전쟁 때 피난 나온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마을로, 북한이 고향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갈산리 1구의 전체 가구 수는 42세대로 규모가 작은 마을이어서 한눈에 마을을 볼 수 있었다. 작은 동산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고 산 바로 아래에 집들이 모여있다.

갈산리의 전체 모양을 보면 채처럼 생겼다 해서 채골이라고도 불리운다. 그래서 마을 안쪽에 있는 집은 채의 안쪽이라 곡식이 모여 부자가 되지만, 바깥쪽으로 가면 곡식이 다 새나가 가난해진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전해 내려오는 민속행사로 마을 입구에서 산제를 지낸다고 하였다. 갈산리는 그다지 발전이 되지 않은 농촌이나 전문대학교가 들어서면서 상가들이 생기기 시작하여 상업과 하숙업을 하는 집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한다.

3) 구연자

【갈산리 구연자 1】

탕정면 갈산1리, 임광빈(任光彬), 남, 57

1993. 12. 17., 황재영 조사

작은 키에 약간은 둥그란 얼굴로 체구가 당당해 보이는 임광빈 씨는 현지 거주 3대째이며 농사를 짓고 있다. 구연 시에는 손으로 방바닥을 탁탁 치며, 손짓을 많이 한다. 주로 눈을 내리 깔고 이야기하며, 양반다리를 하고 앉았다 누웠다 하며,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얘기했다.

조사자들이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장답게 동네 사정에 훤히 했다. 성품이 강직해 보이고, 도덕성과 비판력도 강했다. 동네에 가깝게 위치해 있는 선문대학교가 통일교 재단이라며 그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었으며 김일성 사상과도 통한다고 얘기했다.

구연 자료로는 <구령리 유래>, <갈산리 유래>, <흥가 이야기>, <산제사 이야기> 등이 있고, 주로 어렸을 때 동네 어른들께 들은 얘기라고 했다.

【갈산리 구연자 2】

탕정면 명암리 4구, 공수명(孔洙明), 남, 47

1993. 12. 17., 황재영 조사

건장한 체구에 약간 이마가 넓은 공수명 씨는 약 50년간 현지에서 거주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구연 시에 손짓을 많이 하였으며, 청중들은 약 네댓 명 정도였는데, 호응이 참 좋았다. 자신들이 공부를 못 해서 자식이라도 공부를 시키려는 의지가 강했다. 근거 있는 이야기는 잘 모른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이장 임광빈 씨가 <구령리 이야기>를 꺼내자 자신도 용두리 이야기를 꺼냈고, 조사자가 피꼬리성 이야기의 운을 띄우자 그 이야기도 해주었다. 구연해 준 이야기는 주로 집안 어른께 들었다고 한다. <용두리 이야기>, <피꼬리성 이야기>와 <할미바위>를 구연하였다.

【갈산리 구연자 3】

탕정면 갈산1구, 김현권(金賢權), 여, 74

1993. 12. 17., 황재영 조사

원 고향이 평양인 김현권 할머니는 1.4 후퇴 때 이 곳으로 옮겨와 44년간 거주하고 있다. 이가 빠져서 들성들성 있으며 얼굴에 검은 버섯이 많이 피었다. 눈은 좀 작은 편으로 사람을 볼 때 약간 흘깃거리며 결눈으로 본다. 광대뼈가 비교적 많이 나왔으며, 구연 시에는 감기 기운이 있는지 계속 코를 풀면서 “길더라구”라는 말을 자주 하였다.

조사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청중들이 옆에서 도움말을 해주기도 했다. 종교는 기독교인데 귀신이 있다고 믿었으며 이장택과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그 동안 발길이 뜸했다

고 했다. 토속신앙(샤머니즘)과 기독교를 복합적으로 믿고 있는 듯했으며, 구연자료로는 <귀신들의 대화>가 있다.

【갈산리 구연자 4】

탕정면 갈산1구,이경렬(李景烈) 남, 80

1993. 12. 17.,황재영 조사

인상이 무척 좋아 보이는 분으로 말씀이 별로 없어 보이는 분이시다. 임광빈 씨의 추천을 받고 찾아갔으나 한학을 중시하시는 분이라 민담이나 전설 같은 것은 하찮게 취급하는 듯했다. 역사적 근거를 많이 따졌으며, 현지에서 10대를 이어 살아온 토박이이다. 자택으로 찾아갔기 때문에 조사자 외의 청중은 없었으며, <아산군 유래>와 <피꼬리성 이야기>를 해주었다.

【갈산리 구연자 5】

탕정면 갈산1구, 정경렬(鄭慶列), 여, 73.

1993. 12. 17., 황재영 조사

서산에서 갈산 1구로 시집 온 정경렬 할머니는 작은 키에 염색을 한 듯 머리가 검었으며, 앞니만 있고 구연 시에는 손짓을 많이 했다. 또한 얼굴 표정도 풍부하였으며, 이야기하는 품이 평소에도 얘기를 잘하는 듯했다. 얘기를 무척 하고 싶어 하는 듯한 눈치였으며 조사자들에게 해 준 <고래 잡아 몰살당한 가족>, <물사람 살려 주기> 등의 이야기 외에, 자신이 젊었을 때 소설책에서 읽은 얘기를 하지 못해 서운해 하였다.

【갈산리 구연자 6】

탕정면 갈산1구, 남연우(南蓮祐), 여, 68

1993. 12. 17., 황재영 조사

약간 사각형의 얼굴에 선한 인상을 풍기는 남연우 씨는, 퇴직한 국민학교 교장 정영진 씨의 부인으로 시집 온 이후 46년간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암전한 성품으로 주로 가만히 앉아서 얘기를 했으며 가끔 손짓을 하기도 했다. 녹음하는 데에 신경을 많이 썼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 좀 해 주라며 주위 사람을 부추기기도 했다. 평소에는 동서들과 주로 윗놀이를 즐긴다고 말하며, <피꼬리성 이야기>, <장자울 이야기>, <청맹이 고개>, <떠내려간 산 값 받기>, <석불 이야기> 등을 해 주었다.

【갈산리 구연자 7】

탕정면 갈산1구.서춘례(달성 서씨), 여, 68.

1993. 12. 17., 황재영 조사

작은 얼굴에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쌍꺼풀이 있어 눈이 크며 체구가 아주 작다. 말이 빠르며 의심이 좀 많은 듯했고, 반면 성격이 화통해 보였다. 정신머리가 없다고 투덜거리기도 했으며 조사자가 질문을 하면, “그건 왜유?”하며 반문을 하곤 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불평하듯 툭툭 “난 그런 얘기 참 들어 보네.”하며 말을 내뱉었다.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성격이 아닌 듯, 이야기가 끝나자 부리나케 가버렸다. 조사 자료로는 <구렁이 이야기>, <수수깡이 빨간 이유> 가 있다.

【갈산리 구연자 8】

탕정면 갈산1구, 남상덕(南相德), 여, 73

1993. 12. 17., 황재영 조사

현지에서 약 80여 년 거주하고 있는 남상덕 씨는 자주색 한복을 입고 있었으며, 걸걸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아주 구수하게 구연하였다. 구연 시에 좀 흥분하면 목소리가 커졌으며, 계속 담배를 피웠다. 젊어서 외지에 나가 살다가 다시 돌아와 살고 있으며, 옛날에 들은 이야기는 다 잊어버렸다고 하며 잘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다.

【갈산리 구연자 9】

탕정면 갈산1구, 이영희(李), 여, 80

1993. 12. 17., 황재영 조사

짧은 고수머리에 한복을 입고 있었으며, 무척 얌전하고 다소곳해 보였다. 별로 말이 없는 편으로 다른 사람이 구연할 때에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으며, 이야기가 두 마디밖에 없다고 하며 구연을 시작하였다. 효부로 나라에서 효부상까지 탔다고 한다. <지렁이국 먹고 눈 뜬 사람이야기>를 구연하였다.

【갈산리 구연자 10】

탕정면 갈산1구, 오순분(吳順分), 여, 65

1993. 12. 17., 황재영 조사

평범한 인상의 오순분 할머니는 구연 시에는 주로 눈을 내리깔고 얘기하다가, 시력이 약한 듯 사람을 볼 때 눈을 가늘게 뜨고 본다. 몸짓을 많이 했으며 옛날 이야기를 좋아해서 어렸을 때 할머니께 많이 들었는데 이젠 다 잊어 버렸다고 말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라고 부추기기도 했으며 <시어머니가 구렁이 된 이야기>를 청중들과 서로서로 한마디씩 보태어 가며 구연해 주었다.

【갈산리 구연자 11】

탕정면 갈산1구, 서희원(徐姬原) 여, 76

1993. 12. 17., 황재영 조사

평생을 갈산리에서 살아온 서희원 할머니는 남연우 할머니와 동서 사이이다. 이가 안 좋다며 사과를 손가락으로 끊어서 먹었다. <수수깡이 빨간 이유> 를 서로 아는 얘기라며 청중들과 한 마디씩 주고받으며 구연했다.

4) 설화 자료

【갈산리 설화 1】

탕정면 갈산리 이장덕. 1993.12.17., 한혜인, 신향자, 황재영 조사

임광빈, (남, 57)

구령리의 유래, 갈산리의 유래, 흥가 이야기, 산제사 이야기

갈산1 앞

현충사에서 저 구령리 구령리라는 디가 있어. 그 현충사서, 현충사에서 비암이 큰 구령이가 나와서 그 나와가지구 어디로 갔냐면 구령리로 갔어. 그래서 그게 그 마을이 구령리 마을이라, 그 동네가. 구령리. (조사자: 네, 현충사 있는 데요.) 현충사에서 그 배암이 구령이가 큰 놈이 나왔는디 이제 구령리로 갔데. 그 비암이 간 디를 구령리라고 지은 거지.

췌 갈(葛)자는 지금 (청중: 갈치 꼬랭이를 짜른 격이잖은가.) 죽일라구 그래가꾸 그래가지구 그 사람들이 산에 산에 췌이 많았더라. 아주 췌이 응. 그래서 췌 갈자를 쓰지.

아 요기 요기 요기 요기 김희찬 씨네 요기 살던 사택, 고기다 집을 졌었거든. 사택 졌는데 살질 못해. 흥가집이라구. (조사자: 아아.) 거기서 살면은 전부 병을 얻어가지구 나가구 나가구 지금도 뵈다구. (청중: 지금도 비어 있잖아..) 잉. (조사자: 그냥 빈집으로 있어요?) 집을 잘 지었는데 비었어.

요 앞에 가면 말이지. 제사 지내는 데가 있었는데 그 참 실지로 있었던 일이지. 뭐냐하면 거 온양서 들어오니까 (녹음 불량) 그 집이 그 사람 지금도 살구 있다구. 그 사람 경로 (녹음 불량) 구랭이 있을 수가 없어. 허나 그렇게 해야 됐느냐. 해야 했느냐. 했는데 어느 산중에 가서 무덤. 여기 촛불을 키고. (녹음 불량) 썼는데 어짜피 하나 죽이구 하나는 살려야 혀. 어쩜(녹음 불량) (청중: 그러니까 그 문일헌 낭반이.) 잉 현재. 그래서 그 이사를 갔잖어. 그래서 (녹음 불량) 비명 소리가 들려. (청중: 대신 죽었구만.) 잉. 그래가지구 인제 그 만신이 그 점을 친거여. 치서 (녹음 불량) 그러더라. 그리구나서 그 사람 깨어 났대잖어. 이 잉.

여태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거.

부락 마을에서 산제가 (조사자: 아, 산제사.) 산제사. 산지방이라구 그러대. 그래서 우리들엔 산제사 산제사 하는 거지. 산에 가서 면에 날을 잡아가지구 (녹음 불량) 정월 (청중: 12월달) 그때 가가지구 그 날은 산에 가가지구 옛날에 우리 동남들이 쪽 집집마다 지내서 뭐 어떤 사람(녹음 불량) (청중: 운에 닿는 사람.) (녹음불량) 그 사람을 피해 가야되. (청중: 운 닿는 사람으로 하나까.) (조사자: 요즘도 그걸 하나요?) 잉, 하지. 일 년에 한번씩 하지. 집집마다 쌀을 자기 정성껏 해가지구, 한 가마를 (녹음 불량) 술을 그날 만들어서 그 산속에 다 파 묻었었다구.(녹음 불량) 그리고 내려와서 (녹음 불량) 그 옛날서 전설상에 우리나라 우리 동네가 생겼을 때 생긴 이치여. 집집마다 다 그 늪을 먹었었는데 요즘은 인제 가려서 (녹음 불량) 제사 지낼 때 거기 청설 거기 가서 지금 저 집에서 그런 사람들 불교 믿는 사람들, 제사지내잖어. 불교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것도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도 안 지내지. 그냥 예수교다 뭐. 그런 사람들은 받들구 뭐 찬송가 부르구 그러잖어. 그 저 옛날 제사 지내는 거랑 똑같지. (청중: 산제사 지낸다구 그러지. 동네사람.) 산제사. 동네를 위해서. 그 다음에는 인제 동네 사람들은 인제 우리 동네 사업이지. 내려왔기 때문에 (청중: 전설이지 뭐. 말하자면 전설이야.) 전설. 마을마다 하는 거 있잖어.

【갈산리 설화 2】

탕정면 명암4구, 1993. 12. 17., 한혜인, 신항자, 황재영 조사

공수명, (남, 47)

용두리 유래, 피꼬리성 이야기(물왕산), 할미바위 전설

갈산1 앞

우리 학교 다닐 적에 탕정면 면소재지 탕정 농협지에 가면은 그런 책들이 거기 있는데, (청중: 그게 용에 관련된 거.) 현충사에서 내려오는 용의 혈인데 대가린데, 용머린데. 일본놈이 딱 우리나라 와서 탁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여기서 태어났다고 해서. 지상군이 살펴보니깐 이렇게 보니까 인물이 수없이 나오게 생겼다는 거여. 여기에서 아 안 되졌구나, 끊어라 이기여. 용머리를, 용대가리 밑을 끊어라, 용머리를. 비늘이여 비늘. 왜냐면 그 전에 돌비늘이 말이여. 끊으면 나오는데 (청중: 반짝반짝한 놈이.) 반짝반짝 수없이 우리 어려서 많이 뻐세었거든요. 지금 돌비늘이 없어졌어요. 그게 전부. 근디 그래서 용머리를 끊어서 이장님 말씀 따라 돌비늘이 여기도 말도 못하게 나왔었다구 그전에. 용머리라는 동네가 용두린데 원래가 용머리라고도 시속말로 그러는데 그대로 끊어서 (녹음불량) 용두리라고 해. 그런 걸 유래라고. (청중: 머리 두(頭)자니까 용두리지.) (조사자: 예.) 보통 용두리라고 하죠. 용두리. 근디 용머리라는 디가 갈산리허고 용바닥 (녹음불량) (조사자: 예, 그렇더라고요.)

또 하나 얘기해 줄까. 예 우리 아버지한테 들은 건디 우리 아버지 살아 계시면 열대여섯 살 되셨는디 요 물왕산이라는 디 피꼬리산이라는 디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요기 요 탕정면 제일 그 근처 영동허구 경계쯤 가며는 되는데. 그 성을 왜 피꼬리성이라 하구 물왕산이라구 했냐 하면 허라허면 (청중: 제일 많이 아시네, 하하.) 피꼬리성을 여자성이라그러구 허구 물왕산이란 것을 남자산이라 그러다구. 왜냐면 그 옛날에 장수가 있었는디 남매를 낳대, 남매. 남

매를 낳는디 어떤 도인이 와서 하는 소리가 하나를 죽여야 되지 하나를 안 죽이려는 잉 지들끼리 전쟁해서 남매끼리 치구 죽는다. 남자는 여자를 죽여야 된다. 허니 부모가 가만히 생각하니겐 남자는 살리고 여자는 죽이라고 그러는데 지혜나 꾀를 보면 여자가 월등히 낫구 기운은 남자가 낫구. 그래가지구선 부모가 안 되겠다. 그래서 느네들 데랴다 놓구 얘기를 했대요. 도인이 와서 얘기 허기를 니들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된댄다.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문제를 내갔구 문제 그 시키는 대로 해서 승리하는 사람을 살려준다. 그런데 뭐를 문제를 냈느냐? 남자는 나막신을 신고 한양을 갔다오구, 여자는 성을 쌓고, 그래서 성을 오빠가 올 때까지 성을 다 못 쌓으면 여자를 죽이고, 성을 다 쌓은 뒤에 오빠가 오면 오빠를 죽이고 그렇게 해가지구서 인저 참 아들을 갔다 보따리짐을 지워서 나막신을 신겨 한양을 보내구 인저 동생, 여동생은 성을 쌓는디 암만 생각해도 지혜가 영특해서 여자가 성을 빨리 쌓드래는 거여. 그냥 기운이 좋아서 몇 번 던지구 또 집어 던지구 그러는디. 남자를 살릴라구. 그래서 팔죽을 큰 동이다 설설 끓는 늪을 몇 동이 썩 가지구 언제 이리 오너라 그러니께, 부모 말은 옛날에 거역을 못 허니까 지금 같으면 아예, 나 죽기 전에 성 쌓아야 된다고 할텐데, 옛날 부모 뭐 명이라며는 명이기 때문에 니 오빠 올라면 아직 멀었다. 응.(녹음불량) 을 떠나서 너 팔죽 먹고선 해도 되겠다. 그래 인저 부모 명이니께 먹어야 되지 않겠어? 그 뜨거운 늪의 팔죽을 인저 먹구 이러다 보니께 두 동인가 세 동이를 먹이다 보니께 왔드래는겨, 아들이. 나막신을 신구. (조사자: 아아.) 아 오니께 약속대로 죽여야 될 꺼 아닌가 벼. 그 딸이 이렇게 오더니 왔드랴. 그냥 죽여서 (녹음불량) 못 죽인다. 겨두랑 밑에 날개가 때 버리면 죽는다. (조사자: 겨드랑 밑의 날개요?) 잉, 날개가 하나 있다, 날개가. 장수들 옛날에 겨드랑이 날개가 있어요. (조사자: 예 예.) 그 날개를 떼줘야지 날개가 있으면 죽질 못한다. 아 저녁에 잘 때 들여다 보면 자는 거 안 자는 거 몰르구 그러니께 불러서 얘기를 했대유. 니 스스로 자결을 해라. 궁께 지가 날개를 여자가 뜯드라는 거여. 뜯어내더니 그 자리에서 숨을 겨두드래유. 그 날개가 바로 심장허고 연결된 핏줄이래는 핏줄허구. 그 심장이 그 혈기를 갖다 날개를 뽑어냈기 때문에 기운을 많이 썼던 거여. 그 왜 주먹이 큰 사람이 심장이 크단 소리하지. 요약적¹⁾인디 그래서 그 미국사람보던 한국사람이 창자가 질대. (일동 웃음)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피꼬리성허구 물왕성 얘기가 전설이 생명이 있는 얘기여. 나도 아버지헌테 어려서 들은 얘기여. 그레 (청중: 피꼬리성이 어떤 것인디?) 피꼬리성이 (청중: 피꼬리성이 어떤 것인디?) 나도 안 올라가 봤는다. 빼쪽한 성 있잖아 그게. (청중: 남자성이여? 여자성이여?) 여자성이지유, 여자성. (일동 웃음) 물왕성이라는 건 그 부모네들이 성을 쌓서 지키기 위해서 그레 (청중: 아니 원 여기 아산군 뭐 나오는 역사 그 나오는 거 있대, 책. 그게 좋다구. 예 통계로 나오는 거 있다구, 옛날에.) (조사자: 여기서 갈 수 있어요?) 멀어유. (조사자: 천안 나가면서 아네요?) 여기서 어디 면 소재지에서 우리 부장님 그 동네 쪽 올라가야 혀. 버스도 안 탕여. 차라구 쪽 올라가면 거기서들 동네서도 한 1키로.

【갈산리 설화 3】

탕정면 갈산리 남연우씨 택,1993, 12, 17., 한혜인, 신향자, 황재영 조사.

김현권 (여, 74)

귀신들의 대화

산 있는데 오느라든, 이렇게 산들이 죽죽이 있는데 가다가 길은 저물고 그래서 모이에 드루 뉘서 그냥 자는 것 보담 모이 베고 자는 거이 낫대유. 모이를 베구 자는데 오늘 오늘 내 제 산데 밥 얻어먹으러 안 갈래느냐구. 거 맞은편 산에다가 소리를 지르니까 워져. 귀신이 저 기서 하는 사람이지. 거 자는 사람이 그러니까, 손님이 들어서 못 가겠네 길더래. (조사자: 손님이 들어서요?) (청중: 모이에 사람이 드루뉘 있으니까) 잉. 드루누어 있으니까 (청중: 그 사람 때문에 못 가겠다 하는 애기지.) 예 예. 손님이 들어서 못 가겠네 이러니까. 갔다온대 때. 잘 차렸느냐고 또 묻더래요, 즈이들 끼리. 물으니까 아 이 뱀이 들어서 (청중: 구렁이가 들었다구 그러지.) 잉. 뱀이 들어게 지고 애 저 끓는 물에다가 길을 치구 왔다구. (청중: 주 접치구 왔다구. 하하하. 왜 그러냐면 제삿밥에 지극 정성을 들이지 았구 머리카락이 빠졌드 래유. 그러니까 구렁이라구.) 그래서 그 이튿날 깨서 그 동네 가서 알아보니까 그 애가 데서 과연 물에다 댔대. 머리칼이 있어서. (청중: 머리카락.) 아 왜 제사지낼 때는 요기 이렇게 뭐 인가 빨래 줄도 잇는 것도 다 풀어 놓잖아요. (청중: 들어오는데 이 목이 걸려 전부 떼 가갔 다구 그런데, 혼이.)

【갈산리 설화 4】

탕정면 갈산리 이경렬씨 택.1993. 12. 17., 한혜인, 신향자, 황재영 조사

이경렬(남, 80)

아산군 유래, 피꼬리성 이야기

갈산1 앞

유래는 있겠지마는 그게 맞들 안 해여. 어, 여기에 애초에는 예, 온양군 일북면이었거든 (조사자: 일북면이요?) 일북면. 온양이 요리로 저 구온양, 거기에 인저 온양 구청이 있구. 일구 이구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일북면이었어. 일북면이었는데, 인저 한일합방 땀에설라무니, 일본 사람들이 여기 여 군을 온양군 아산군 신창군 이렇게 세 군 있었어. 아산군 신창 이 세 가 지를 합해가자구 아산군으로 했시유. 그여. 아산군으로 했다는 건 내 생각으로는 왜 왜 온 양군으로 해도 되는데 아산군으로 했느냐 이런 의혹도 있을 수 있잖어? 지금도 우리가 얘기 하는데 아산군으로 했다는 건 아산만 사건이 일정시대 있었어. 일본놈들이 잉, 그리고 인저 김옥균 사건이라든지 이 이런 것이 아산을 이렇게 했기 땀에 아산을 기억해기 위해서 아산 군이라 한거 같다구. 그리고 여기 탕정면이라는 것은 그 탕정 온양 지금 저 온양 바로 그 저, 아파트 짓고 그러는데 거까지 연결됐어요. 온양이 그러니까 인저 인저 거기 탕이 있고 그러니까는 고것을 넣어가지구서 탕정면이라구 한 것 같애. 그래 그러지 았아도 내가 여기 노인회도 참석하고 이라니까는 인저 한 번 (녹음 불량) 줍 줍 같(葛)자 산(山)자인디 줍이 많어. 그 대신 줍은 많어여. 산으로다. 여기 아주 그러니까는 갈산이라고 하지 았았느냐. 이 령게 생각이 들지. 그런 정도지 뭐. 내가 여기서 살기는 한 10대 살았으니까 몇 백년 살았 는지도 모르지. 나도 여기서 나서 여기서 큰 사람이니까 굉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 그렇 게여 큰 것들은, 몰르겠어요.

(조사자: 그거 뭐 아시는 거 있으면.) 이 근래에 그런 얘기를 자꾸 해. 피꼬리성하고 물왕성

하고 (녹음불량) 남매가 말이지 성을 쌓다고 그런 말이지. 남매가 인제 성을 쌓는디 누가 먼저 쌓느냐. 내기를 했다고. 저기 뭐 남자는 어디를 갔다오고, 물왕성 사이에 여자동생이 그 성을 거의 완성하게 됐는디 부모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상의를 해서 결국은 저기 남자를 갖다 먼저 쌓게 했다. 이런 속설이 있어. (녹음 불량) 그게 인제 속설이고, 원 거기 가서 볼 것 같으면 한두 해 쌓은 것이 아니지. 이런 돌을 갖다가스리 주서다가시리 굉장히 이렇게 몇 개해서. 그 어느 때냐 하면 이 저 백제에 백제 때 여기루다 백제 때 중이 방향으로 해서 물랑 저기까지 연결되어 있어. 저 충청북도 청주로 해서 그 무렵에 쌓은 거지 몇 십 년 혹은 백 년에 걸쳐 쌓는 지도 모르지. 그 역사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속설이 있지. 그렇게 난 뭐. (조사자: 할아버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게 어떻게 쌓여진 성 같으세요?) 그 옛날에는 저 성을 쌓으면은 그걸 지침으로 해설랑 그저 그 고장을 지킨다던지 이런 의미에서 그 때는 또 파인이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뭐라고. 성을 쌓으면은 그 성안에 또 물이 있어야 되. 어디든지. 암만 산꼭대기래도 물이 있어야 왜냐하면 적군이 와설랑 이성 바깥을 점령하고설랑 포위하고서 올라달 못하고 포위할 적에 물이 없으면 뭐 죽는 거니깐. 그 물이 있어야 그게 완벽한 성이라고 볼 수 있지. 그게 대개 성은 물을 있게 마련이야. 거긴 물이 있어, 여기 새암이. 그렇기함으로설랑 국경을 지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옛날에는 싸올라면 어떤 성을 점령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 그 성부텨 함락을 시켜야 하나하나 그게 점령되는 거야. 말하자면 그 군부초소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지금에 와설랑 그게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때는 그게 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요지라고 그럴까, 뭐라고 그럴까. 일본사람들이 그때부터 뭐 돌아댕기며,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 없는 말은 아녀. 지리학적으로다가 옛날에 풍수지리학으로다 학생들 알랑가 모르겠는데 산이라는 것은 연기가 내력이 있지유. 내력에 의해설랑 이 형체가 농부 (녹음 불량) 어디는 무슨 뭐 매화꽃이 다 매곡이다 뭐 이런 내려왔는디 거기 혈을 끊을 것 같으면 그 아래가 좋은 자리라도 좋은 자리 유지를 못한다. 이런 풍수 지리학적인 말이 있지. 일본놈들이 와서 우리나라 금수강산이란 말은 사실이야. 내가 동남아도 땡겨보구 스위스니 뭐니 우리나라마냥 이렇게.

【갈산리 설화 5】

탕정면 갈산리 남연우씨 태, 1993, 12, 17., 한혜인, 신향자, 황재영 조사.

정경렬(여, 73)

딸 열둘을 둔 아버지, 고래 잡아 몰살당한 가족, 몰사람 살려주기

갈산1 뒤

(조사자: 어른들한테 들은 것 얘기들 있으면 그런 거 좀 얘기해 주세요. 어른들한테 들었던 얘기 있죠. 그거먼저 조금조금이라도 해주세요.) 쪼끔씩? (조사자: 예예.) 어른들한테 들은 건 몇 가지 있기가 있지. (조사자: 예.) 우리 아버지 친구네가 얘기를 했는디 어떤 이가 딸을 열둘을 낳는데 한 열둘을 또 얘기가 있어서 인제 날 달이 됐는디. 그거 또 쌍둥이가 두 번이지. 그러니까 여덟 번을 난 거야, 낳기는. (청중: 웃음) 열두 번을 낳어도. (조사자: 예.) 근데 여덟 번을 낳는디 인제 (녹음불량) 열둘을 낳고, 열둘을 낳고서는 또 얘기가 있는디 이적지 뭐냐면 옛날 타적본다고 그래, 타적.(조사자: 그게 뭔데요?) 타작보는 기? 잉 그게 농사짓는 논임자가 가서 인제 (청중: 감독하는 거.) 벧단을 세 보고 얼마 수확 났다는 거

그거 정리하는 거여. 그래서 인제 가면서 허는 소리가, 애기가 또 낳 때이 됐는데 딸을 열 번을 낳았어. 또 애기가 이시니 낳 때가 됐는데 (녹음불량) 딸만은 집인데 이번에도 딸이면 애를 찍이구서 내가 죽을 테니께 그리 알라고 항상 그랬으니께. 산모를 살려야 헬 테니께 저기 잘좀 지켜봐 달라구. 이제 그러구서 갔는데 갔는데 (녹음불량) 애들이 그 딸들이 그냥 많으니께 그냥 대문에서, 대문을 짹 잠꿨드라는 겨. 애들이 바깥에 나와 섰으니께 왜 니들 못 열구. 엄마가 바깥에 나가서 놀으라구 그랬다구. 아프다구 그러여 아니라구 가만히 있으니께 대문을 가서 흔들어 보니께 잠꿨어. 짹 잠귀 안으로 잠꿨어. 그래서 애들은 할 수 없이 담장으로 넘겨보냈어. 들어가서 엄마가 좀 어떻게 하고 있나 보라구 그러니께 하나가 담으로 넘겨보내니까 엄마가 애기 낳았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인제 사람들 시켜갖구서 담으로 넘겨 대라구,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께 아들 쌍둥이를 낳았다구. 아들 쌍둥일 낳는디 큰아들 동서란 놈이 읍내를 나가서 어디를 간다고 사죽보러 간다는 걸 일러줬기 때미 십리나 되는데 거길 뛰어갔다. 어떻게 뛰어갔는지, 작은아버지라는 노인네가 뛰어갔는데 없더리야. 아, 왜 그러시냐구. “아, 얼른 좀 와봐. 이번에 애기 애미가 아들 낳어. 아들 쌍둥이.” “이번에도 딸 낳지.” “가슈, 가쇼.” 그러니께 아니라구 정말 낳다구. “얼른 와. 얼른 와 봐.” “만약 저기 니가 고지 안 들으면은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해여.” “무슨 약속을?” “이번에 가서 아들 쌍둥일 낳으면 아들 쌍둥, 쌍둥이라는 말은 하지않고 아들을 낳으면 (녹음불량) 나를 아주 그냥 원망을 하구.” 그러니께 그러라구. 따라와 보니께 증말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낳았으니께. (녹음불량) 옛날 부자들이 많았어요. 저기 애들은 그냥 길르는 겨. 아 대문짝 앞에서 그냥 맨날 며칠을 서 있는 겨, 그냥. 인사받느라구. 아 애 아버지가 (칭중: 한 숨도 안 자구.) 고추를 따서 짚들이 해서 찜기고 아 자네 이제 아들 낳나? 그러면, 아들 낳어. 한턱해야지. 아 해야지. 인제 그러다가 그런 와중에 딸 열 둘을, 둘을 혼사시키고 예식해서 시키고 그 다음에 둘은, 둘 셋 넷 넷은 민며느리로 줬어. (칭중: 그때 민며느리가 없을 걸?) 민며, 저기저기 (조사자: 민며느리요?) 민며느리, 민며느리. 데려다 키우는 겨, 그건. 그래. 민며느리루라다 넷을 줬대. 키워서 저 그까짓 지지배들 돈 들여서 시집 보내면 뭐하냐구. 그냥 막 저 하나씩 집어내 준 겨 그냥. 넷하고 둘하고. 여섯 보내고 여섯이 또 남았어. 그래서 인제 딸 하나를 인제 시집을 보낼러구 인제 보내구서 보냈어.(녹음불량) 딸네가 어떻게 살고 있나 일곱째네를 서울 갔다가 들어가 봤대요. 인제. 평소엔 가지도 않는디 들어가 보니께 딸네를. 사돈이라는 이가 당장 볼 수 없다고 점심상을 글썽 들여오는데 도무지 딸이 보질 않아. 점심이 오기 전까진 시간이 흘렀잖아. 근게 딸이 안 보여서 시아버지가 (녹음불량) 우리 아들이 유학을 갔던디 같이 데리꾸 갈러구 대강 좀 눈 좀 떼어서 보낼러구 그런다구. 근데 좀 시간이 걸려서 그런다구. 딸이 원망도 하구 시부모 잘 만난 덕분에 (웃으면서) 미안해 가지구 뛰어왔대요. (조사자: 그러니까 아들만 사랑하는…….)

(남연우 씨의 피꼬리성 얘기가 끝나자마자 말이 나온김에 얘기 한마디 더 하겠다며 구연을 시작했다.)

말이 이렇게 한 가지만 더 얘기 해 줄께. 이제 왜정 때 바닷물이 (칭중: 거기 막 들어와유.) 바다 가면 여기에 저기 띄어 있고 이쪽으로다 띄어 있는디 시방은 면전에다 막았기 땀에 (조사자: 거기가 어디인데요?) 저기 서상면 태안군 (칭중: 서상군인가? 서상군.) 잉 서상군, 그 저기 호호호홍화바다 (칭중: 아니 화해가 맞아유. 연장리라는디. 이쪽엔 장리라는디, 동네 이름이유. 녹음 불량) 근디 하루는 그 양정리 사림들이 산땀을 샀는데, 집쪽으로 가로 막

아가지구 무지무지케 자기가 내려. 그래 그때도 하루는 동생방으로 자꾸 형방이, (녹음 불량) 동새이 꿈을 꾸는데 산새라는 데는 물이 그냥 아주 없이 멀리 들어 와갔구 물이 가뜩 채서 채지나가구 채지나가구, 조금 있다가는 이렇게 들어 왔다가는 그냥 뜨르름하게 그냥나가기 때문에, 큰 고래, 그냥 쪼그만한, 집채만한 게 고래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들을 쪽에 이렇게 들었다가 나갈 적에는 물이 그냥 뚱하게 나가고 얕으니까 그게 못 나가구 있다는겨. 그 고래가 사립인디 선물을 하는겨. 내가 저기 물빠에 채들어 왔다가서 이러지비 갔구선 바다에 이리저리 여기가선 동네 이름이 소울물이라는데 내가 소울물에 와서 지금 내가 와서 이렇게 채여 있으니 나를 그냥 사람들 동원해 가지구서 저기 바다루다 데려다 주며는 아그 당신을 생전 그냥 두집 식구 그냥 생전 그냥 힘 하나 까딱 안 하구서도 가만히 앉아서구 먹구 입구 살게 해 주겠다고, 그래 나가보니 소울물이라는 디를 (녹음불량) 진짜 산이라구 해서 보니까 이만한 (녹음 불량) 막 올라가니께 그녕 그 뒷 풍대기가 왜 물개 봤잖어.(조사자: 예.) 요기는 뱀, 요기면 이런 덴 고기, 고기 잡여. 그것도 그거랑 마찬가지로. 취와서 뒷 풍대기를 이때만한 놈이 철컹철컹 그러더라. 반가워서, 그 사람이 나와 이 사람은 그 고래가 캄캄한 데가 그냥 큰 집동이 만한 놈이 와서 있으니까 아 저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구 (녹음 불량) 있는디 인연인데 보구서, 어 너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구, 그런데 이 사람은 생각헌게 거기서 자기 안 될 것 같단 말야. 나뭇군이 밝질 안 해갓구. 그리구 자기는 (녹음 불량) 아주 조바심을 이렇게 이렇게 치더라. (녹음 불량) 자기 이상한 꿈을 꿴디, 무슨 꿈을 꿴디 꿈을 꿴디 소울물예요. 고래가 들어 왔거던 고래가 채여갔구 못 나간다구 저기 바다루다가 떠밀어 주면, 우리 두 집 식구 하 생전 손톱 하나 그냥 막 아주 일평생을 먹여 주고 입혀줄 테니, 떠밀어 달라구 하는데 사람들 동원 할까요? 애. 너는 허황된 소리 좀 하지마라. 지금 그런 거 그걸 고래 피기가 빛깔이 꼭 쇠고기 같구 그렇다구 몰래 갖다 수출하는데 당장 벼락부자가 될 텐디. 그런 소릴 곧이 듣고, 꿈이라는 것을 아 그러다가서는 사람을 보내 봤어. 집채만한 게 있어. (청중: 웃음) 잡았는디 꼭 쇠고기 같은 게 냄새 같은 것 약간 갯고기 비린내 나도 저 빛깔은 꼭 쇠고기하고 똑같애. 그렇허구선 그냥 잡아가지구선 옛날엔 마차가 마차 (청중: 우마차지.) 경운기는 없어. 동네 마차란 마차는 다 동원해 갔구선 막 세상 시내로 여기서 원천 같은 시내로다가 그냥 막 며칠을 실어 올려갓구서 팔았는데 며칠 안 있으니까 (녹음 불량) 그냥 일년 농사두 안 되갓구선 작은집에서 인제 어머니가 어머니 한 본인데 작은아들이 모시는데 그 어머니는 그 저 잘 사는 거 아들들 잘 사는 거 보러 가겠다고. 그 어머니는 가더니, 꿈에 선물하는 그 동생, 아들 죽고 딸도 죽고 (청중: 잡지 말아야 하는디.) 딸들 죽고 마누라 죽고 그렇게 하구서는 동상네 아들 밑으루 밑으루 하나, 아주 씨혈 꺼 하나 넘겨 놓구. 씨혈 꺼 하나 남겨 났대두 그거 혼자 커서 살려면 고생이잖어. 공께 큰 집 식구는 한 개도 없이 그냥 아주 한개두 없이 이렇게 (청중:그거 살려줬으면 팬찮았을 높으걸.) 거기는 그냥 아주 한 개도 없이 죽었어. 작은집은 아들 막내 아주 하나 넘겨 놓구, 땅덩어리는 뭐 누가 가져갔다구 허니께.

그냥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도망 돌망 있는 게, (청중: 구렁이도 맘대로 못 죽여. 구렁이도 그러니까 구렁이도 맘대로 못 죽인다니께.) 인제 그러는데 초저녁에 삶을 노러 가니께 갔는데 가보니까 고기가 아무 것도 없더라. 하나두 안 들어 왔드래. 아 고기가 이렇게 하나두 안 들어왔어. “죽겠다야. 가자.” 그러구 있는데 뭐 우는 소리가 나가지구 가보니까 물사람이 애를 업구서 이리 왔다 갔다 나가질 못 해갓구 울더라. 그냥 엉엉 어떻하지. 물사람을 잡아

다가 먹을 수도 없구 못 목는 거 (청중: 난 처음 듣는 소리네.) 물사람이 있다니께. (청중: 물사람? 물사람이 구신이어 뭐여?) 물사람, 물사람. (청중: 물사람이 뭐여?) 아이 물사람도 뭘러? 닭고기나 똑같은 건디, (청중:그러니까 인어여.) 사람 사람 형태가 이랑디 이런디 같은데 사람, 인어여 인어. 그랬더니 그래서 갔다가 수돗물 넣어 가니께, 고기가 다 가져가질 못허게 채였어. (조사자: 물사람을 살려주세요?) 잉.

【갈산리 설화 6】

탕정면 갈산리, 1993. 12. 17., 한혜인, 신향자, 황재영 조사

남연우, (여, 68)

피꼬리성 얘기, 장자울 이야기, 고려장 이야기, 청댕이 고개, 떠내려 간 산 값 받기, 장자못 이야기, 석불 이야기, 구경 못하고 죽어 구렁이가 된 사람

갈산1 뒤

녹음하지 말구. (조사자: 네. 그럼, 녹음 안 할게요.) 남매가 어떤 남매가 있는디, 남매가 힘을 겨뤘대나 봐. 서로 이렇게 성은 누가 먼저 썩나? (청중: 남매가?) 잉, 남매가. 그런데 물왕성은 남자 꺼고 피꼬리 성은 여자 꺼래. 옛날에 할머니들이 그러시더라구. 그래서 인자 인자 그 둘이가 부지런히 인저 성을 썩는디 아무리 봐도 여자가 이기겠거든, 남자보다. 그래서 인저 서로 죽기를 이저 약속허구 그걸 현 거여. 그랬는디, 아들은 살리고 싶구 딸은 살리구 싶질 았으니까, (청중: 그렇지 그렇지. 웃음) 어머니가 이잉 (청중: 찰밥을) 찰밥을 해서 저기 딸은 배를 배를 채우고 남자는 그 자꾸 저기 베짜는데 애 저기하면 이거 먹어라 먹어라 하구 갖다주니까 더 부지런히 그냥 그 베짜는 꾸릿물에다가 손을 덤병 덤병 담가가 지구 꿀을 입에다 묻혀서 얼른 넣고 얼른 넣구 그러니까 더 잘하더라(청중: 웃음) 나주에는 그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여자가 이기게 생겼어, 그 그냥 어머니가 아들을 살릴려구 딸은 죽어도 괜찮구 아들은 살릴려구 그냥 막 야단을 하구 그래가지구선 아들이 오게 되니께 거기선 저기 하는 거야. 너 이리 와서 잠깐 내 얘기 들어보라구. 암만해도 니가 저기 니 누이 헌데 지게 생겼으니께 저기, 저기 하라구 그냥 중간에 앉아서 붙들어 놓구 막 맥이구 해가지구 그에 여자가 졌대. (청중: 네, 웃음. 붙잡고 지겠거니 하느라구 그랬구만 그려.) 잉잉 그래서 그러니께 딸은 죽어도 괜찮구 아들은 살릴랴구. (청중: 웃음) 그래서 인저 그렇게 해서 물왕성은 저기 남자 꺼구 피꼬리성은 여자 낀디 지금도 피꼬리성에 가보며는 밑에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된 밑에 (청중: 바우.) 바우가 이렇게 (청중: 바우가 넓적허지.) 밑에 이렇게 썸이 있거든. (조사자: 예.) 그런데 썸이 그냥 그 바우 꼭대기 밑에서두 우리도 가 봤지만 거기서 아주 그냥 물이 요런 썸에서 막 물이 나구 물이 나구. (조사자: 아아.) 그 우에 보면 이 정도 되는 바우가 있어요. 바우가 있는디 옛날에 참 백살 먹은 할머니가 거기 옛날에가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 102살까지 먹은 할머니가 거기 있었어. (청중: 거기다 들기름 들기름 불 켜놓구.) 기름 불 켜놓구 그러는디 그 102살 먹은 할머니가 봐온 이가 하얗게 났어. (청중: 다시 낱구먼.) 잉 다시, 잔잔하게 났더라구. (청중: 노인네 우리 어려서 거기.) 그려서 보며는 이렇게 성 썩은 우에다가 이렇게 밥그릇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그러니까 대동리에 있는 거여. 대동리, 대동리 앞산 그러니께 피꼬리성 물왕성 그려지. 성이 양쪽으로 있는디, 남매가 썩 성이지.

* 서춘례 씨의 구령이 얘기가 끝나자 청중들의 권유에 이 이야기를 꺼냈다.

(청중: 아 얘기들 얘기들 학생들 필요한 얘기가 해여. 서로 이야기에 끼어들어 산만한 가운데 구연하였다. (조사자: 장자울요?) 장자울. (조사자: 장자울요?) 지금 얘기하는 기여. 성화대²⁾ 문선명이가 참말 세계에 장자다. 와서 학교 (청중: 장자울이라는 동네가 문선명이가 와서 일으켰잖어?) (조사자: 예 예.) (청중: 성화대. 성화대학.) 그러니까 장자가 울을 쳤지, 와서 말하자면. 그렇잖아? (조사자: 예. 장자가 울을 쳤다.) 장자가 울을 쳤다구. 일단 울을 치구 거기 앉았잖아. 그러니까 동네 이름도 그렇게, (청중: 무시 못해. 그래 있어.) 가만히 보면 뭔가 꼬투적인 거여. 저기 봐. 연화동 국제장적 있는 데. 거길 연화동이라구 그러지. 아가씨들이 많잖어. 연꽃이 활짝 폈잖어. (청중: 웃음) 그거 이상하게 이렇게 지역을 이름진게 그냥 진 게 아니여. 가만히 보니까. 다 살다가 진 거니까. 가만히 뭘 보구 졌다든지 (청중: 용머리 비늘, 용머리가, 용머리처럼 생겼다구.) 아니 그래가지구 용머리가 허리 끊어져가지구. 뭐 저 안 나온다구 그러잖어. 뭐 그런 소리 안 혀? (청중: 없는 사람이 여기 들어오면 부자 된다구. 부자되서 나가요.) (조사자: 예? 여기요? 갈산리가요?) (청중: 근데 있는 사람이 가마니에 꼭 찼으면 그 이상 부자가 안 되요.) (청중: 웃으며, 아니지 점점 늘어나지.) (조사자: 여기 뭐 또 지무래라는, 지무래에 대한 명칭에 뭐 전해 오는 얘기 없어요?) 글썄 그런 거 모르겠는데. (청중: 지무래, 밖지무래, 안지무래, 가락봉, 글썄 이름은 그냥 지은 게 아닌가 봐.)

* 장자울 얘기가 끝난 뒤 흥이 고조되면서 서로서로 한 마디씩 주고받으며 얘기를 시작했다. 역시 산만한 분위기에서 얘기가 진행되었다.

가장자리에다가 나무 하나씩 떼 놔다고 (청중: 웃음) (조사자: 예, 고린장 얘기도 많이 나온 얘기중 하나라고 하던데요. 그것도 뭐 기억하시는 거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세요.) 잉, 고린장. 나 못하. 하하하. 한발짝씩 가면은 또 한 칸 나무 잎파리 떼서 여기다 놓구 또 한발짝 가면은 또 놓구 또 놓구 끝까지 걸어가는 내려오니까, 인제 나무 들거락 보면서 내려 온다. 질을 찾아가지구. (청중: 어디 가셨어. 또 오늘은?) 잉 천안으로 온양으로 해서 나왔지. 그러다가 오다가 생각을 해니까 아이구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저기 질을 찾아주시고 저기 하셨는디 나는 죽으며는 뭐 저기 저기 뵈 매달았다. 하하하. 도루 가서 되루 가서 우리 어머니를 모시구 와야겠다구 지계를 가지구 가서 어머니를 되루 모셔다가 집에다가 되루 모셨다. 아니 그런 얘기면 몰러두, 아들을 데리구 할아버지를 그러니까 지네 아버지가 고려장 지내는, 가서 내버리고 고려장 지내고 돌아서니까 아들이, “아버지, 지계 이거 가지구 가야지유.” 그러더라. 그 지계를 뭐하러 가져가니? 그랬더니, “아버진, 답에 아버지를 저다 내비릴라구.” (청중: 웃음) 그 지계를 가지구 가야 한다잖어. 그래서 그 지계를 가져왔다잖어. 그래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당하겠으니까 도루 데려왔어. (청중: 옛날 고려장을 얼마나 많이 시켰어. 워낙, 노인네들 그냥.) 밥해서 그냥 죄 차려서 넣어줬지. 그래서 그 고린장 저기 없어졌다. 즈이 어머니가 부모가 늙어서 나도 당하겠으니까. (청중: 뒤집어 씌워서 밥해서, 나도 당하겠으니까.) 그런데 그 한계가 몇 살이서만 다하면 그렇게 하는 한계가 있어. 몇 살이

면 다들 누구든지 몇 살이면 그 나이만 되면. 옛날에는 법이 그렇게 있다. (청중: 그래서 옛날에 그 노인네를 업고가는 천형이야. 그 지게다 지구 가는 거. 참, 눈물나와.) 아, 그런데 걸저리는 노인네다 속웅 애들 맘이라는데 그거 참 지게지구 가서 그 땅 속에 들어가면 참 제절로 눈물 나와서. (청중: 아 이렇게 파 묻잖아. 이렇게 파 놓구서 거기다 밥하구 국하구 죄다 넣어주잖아.) 그래두 우에다 흙을 덮어놓구 등잔불이라는데 그거 뭐 아, 정신은 지끔 정신이나 그때 할머니 정신이나 똑 같은디, 이렇게 정신이.” (청중: 아들이 지게를 가지구 가자구. 너 어디를 가지구 가느냐구 헤니께 아 아버지 지구 가야 할거 아니냐고 그리구 그걸 가지구 있대, 지게를.)

* 남연우 씨가 청댕이고개 얘기를 꺼내자 서춘례 씨가 자기가 하겠다고하며 두 분이 번갈아가며 구연했다.

남연우: “청댕인가 거기도 전설이 있는디…….”

서춘례 : “나 좀 봐. 청댕이고개 얘기를 좀 할께. 인저 잉? (조사자: 네.) 우리 고모가 처음에 시집 올 적에 온양골 천안엘 갔잖어, 거기서. 시아버지가 그렇게 시집살이하는 줄 모른대유. 그저 먹구 내리 두드려 패는 거야. 우리 시부모를 그냥 그냥, 시집살이 저기 해질 못해서 그걸 못 이겨서 시집살이를 못 이겨가지구 친정엘 도루 온다는데, 이틀 사흘밤을 걸어왔대유. 걸어와가지구 거기 청댕이 고개 있잖아유? 거기 거기 집 한 채가 있어. 우리 고모 어려서 많이 갔시유. 거기 가서 그냥 하룻밤을 이렇게 새가지구 잠을 잤다. 잠을 자가지구 선 그 그냥 온양골로 걸어 온 거여, 그제. 우리 친정으로 그러니께 인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러유. 엄해유. 우리 친정 아버지가 (청중: 그 때야 뭐, 죄…….) 그럼, 우리 친정아버지가 엄해여. 그래 인저 자구서는 그날 아침에 인저 막 들어 닥치니께는 우리 아버지가 (녹음 불량) 너 죽어도 그 집에 가서 죽구 살어두 그 집에 가서 살어라. (청중: 옛날엔 다 그랬지.) 잉 우리 아버지가, 시방도 얘기해여. 우리 고모, 내가 오빠 땀에 큰오빠 땀에 내가 이렇게 시방까지 이렇게 살았다구. 막 두드려 패서 보내니께 그냥. 아주 그래가지구 큰일 났더라.”

남연우: “청댕이 고개루 그 바위 하나가 있어, 바위. (청중: 그러유, 바위 있어유.) 잉 잉 그랬는데, 반이 짝 갈라졌거든, 그 바위가. 그래가지구 그제 전설을 지니구 있드라구. 그 바위가 옛날에 없었을 제 군인들 훈련장 있는디 가면 바위가 그 바위, (청중: 내가 시방 청댕이 고개 가면 그 생각이 나. 우리 고모가 쫓겨가지구 왔다가 가다 자다 가다 가다 거기서.) 어떤 어려운 사람이 인저 부모를 보는데 시아버지가 그렇게 병환이 나서서 시아버지 병간호를 허는 사주가, 먹을 게 없어가지구 어디를 얻으러 땡기다 보니께, 달랄 수도 없고, 개가 토해논게 있드려. (청중: 굶봐갔구.) 그래 그걸 깨끗이 닭구 닭구 해가지구 밥을 쪄대, 시아버지를 밥을. (청중: 우하하하. 그랬는데 나중에 막 느닷없이 막 구름이 끼오구, 그래서 내가 인저 죄를 받지허구 지가 먼저 밥을 저서 떠 먹어보구 그래 시아버지한테 쫓대유. 그랬는데 느닷없이 막 안개, 안개가 자욱하게 피더니 막 비가 오구 막 천둥번개가 허드래유. 그래 인저 죄인은 나라구 말이여. 내가 이거 죄를 받아서 죄인은 여깁다구 그래구 자기가 나갔더라. 그랬는데 느닷없이 탁 하구 때리더니 그 바위를 때리더라. 그렇게 해서 그 바위가 그냥 짝 갈라진겨. 거기서 금은 막 나왔갔구 그 사람은 살렸대는 거지. 청댕이. (조사자:청댕이

고개가 어디 있는대요?) 그 모양서 구온양으로 올라가매 풍기리 우에 (청중: 송악 갈려면 요.) 직금은 그 바우가 없어졌더라구. 우리 그 어려서도 그 바우가 있었어.

그런데 그런 전설을 지니고 있었지. 전설을 지니고 있는디, (조사자: 어디요?) 목천 앞산인가? 뒷산이 인식산이라구 있어. (조사자: 아, 은석산이요) 거기도 전설이 있지. 인식산. (청중: 아이구.) 그게 장마에 떠내려 왔어. (조사자: 아, 산이요?) 산이 떠내려 와서 쌓이구 쌓구해서 산이 됐는데, 인저 그 산을 떠내려 보낸 산주가 땅값을 받으러 그 땅 임자한테 왔드려. 땅값을 받으러 와서 그 산을 떠내려와서 당신네 논에가 떡허니 있으니 산값을 내라구 그러더라. 그래니깐 그 산, 논임자가 곤란할 꺼 아녀? 그 왔다갔다 허니께. (청중: 그 빼 가라구 그랬지. 빼 가라구.) 아녀. 빼 가라구 그런 게 아녀. 세 살 먹은 어린애가 오더니 할아버지 왜 그렇게 왔다갔다 해여? 그러더라. 세 살이라나 다섯 살이라나? 왜 그렇게 왔다갔다 하나구. 산임자가 산값을 받으러 왔는데, 할아버지 그게 뭐가 걱정이냐구 내가 가서 받아낼게 그러드려. 할아버지 오셨느냐구 가서 인사를 하더니, 딱하고, “산값을 받으러 오셨슈?” 그러더라. “그래.” 그러니께 “그럼, 할아버지 산은 그만 두구 논값을 내시유.” 그러더라. (청중: 하하하. 다섯 살이 뭘 알어? 논을 못해 먹으니까.) 잉, 논이 와서 그 산이 은석, 그래서 그걸 은었다 해서 은석산이라잖아. 그 은석산이 전설이 그래. 옛날에 그게. 그 목천이라는 데가 우리 어머니 친척 동네거든. (조사자: 네.) 근디 그 은석산이 그런 전설이 있다. 그래서 그게 은은 산이라구해서 은석산이라구. 그 어린애가 다섯살 먹은 어린애가 나와서 저기 그 할아버지도 해결을 못한 걸 (청중: 그렇게 말여. 그것이 나와서 해결을 했다.) 잉 그걸 뭐가 걱정이냐구 할아버지 산값을 그만두구 그 밑에 있는 논값 내라구. 그런 애길 해주구 그러게. 어린애들 지혜가 무섭다구 그러는 거지.

(조사자: 또 다른 전설 없어요?) 이거는 저 그 근동에 있는 것을 내가 들은 거여. (조사자: 장자못이요? 그건 뭐 전해 내려오는 건 없을까요?) 그 장자못도 뭐 그게 저기 말하자면 직금 있는 석정리 앞에 있는 그게 장자못이라구. 그러나 여기 영십리 잉, 거기 거기를 그전에는 거기가 장자못이라구 그러. 잉 거기가 뭐 저기 어려서 들은 애긴디, 옛날 할머니들 들어서 부자가 자꾸 저기를 해가지구. 그 중이 와가지구 동냥을 달라구 그러는데 동냥을 안 줬대나 봐. (조사자: 아아.) 동냥을 안 주니께, 아가씨가 나가가지구 그게 저기 그러니까 어른들이 안 주는 거를 아가씨가 동냥을 줬다. 동냥을 주니까 중이 쫓아가지구 쫓일 저녁때 다 되가지구 자기네 집으로 죄다 앉아서 아버지들은 야단을 할꺼 아녀, 동냥을 그렇게 쥐가지구 쫓일 그렇게 죽게 한다구. 옛날에는 저기하면 처녀는 그렇게 나가는 걸 야단을 하구 그랬는데, 그러더니 거 나중에 동냥을 얻어가지구 간 뒤로부터 거기에 뭐 그렇게 아주 계속 풍년이 들구 쌀이 쏟아지구 그래가지구, 가면서 지를 참 쳐다보지 말라구 그러더라, 거기를. 나 가면 다 가도록 쳐다보지 말라구 그랬는데 저 쳐다보가지구 그렇게 물이 채여서 그래서 그게 없어지구 그러니까 그게 권을 원망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못이 됐다구. 그게 그 수원댐 모시라구. 방수모라구 그러지. (청중: 그러, 방수모라구 하지.) 그게 장자못이지. 거기가 있지. 그러니까 옛날에두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한테 덕을 베풀으라는 거지. 그런 것도 동냥 두 안 주구 논기계하구 아버지는, (청중: 그 옛날에 지금은 동냥이 없지. 옛날에 장뽕뱅이 그거 에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왔다는, 안 주는 사람은 안 주구, 주는 사람은 주구.) 그러니께 옛날이나 직금이나 덕을 베풀라는 거. (청중: 그래서 어른들 암 준다구 또 어떻다구 없다든 또 그냥 가. 주믄 고맙습니다 허구 가지, 또. 엄니보다 내가 더 잘 하는 그래

하다가 들킨 것 말이야. 몰래 떠다가 더 쫓아. 게다가 노래 허라문 그러면 또 잘 해. 저 쫓고날 때, 저기 장뿔뿔이 많이 왔시유.)

직금 석불이라구 거기는 이렇게 저기 가며는 미련한 사람을 석불이라구 그래. 여기서 바보를 석불이 석불이 (청중:미련해서 그렇타 그러지.) 그이는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구 간 거리가 남은 거리보다 많어도 어려우면 되돌아 온다구. 그래서 거기 사람들은 이렇게 미련해서 뭐하는 사람들은 여기는 바보같다구 그러잖아. 거기 사람들은 그 사람 별명이 붙어서 석불이라구 그래. 그 사람 이름이 석불이여, 그래서 그냥 그 석불이 돌머리다 그거지. 그래도 사람한테 별명이 붙어가지구 거기 사람들은 여기 사람 미련허구 그래면 참말 바보라구 그냥 실상 이렇게 나오는데 그쪽 사람들은 석불이라구. 처음에 가니깐 난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랬어. 석불이 석불이, 다시 돌아온다. 오는 데까지 가는 거리가 가차와도 되려 오는데까지 못 가졌으면 도로 오는겨. (청중:가다가 못 가면) 멀어서 지가 어려우면 오던 길로 그 길이 더 멀어도 온대요.(청중: 웃음) 그래서 거기선 석불이라구 그러더라구.

* 옆 사람하고 소근소근 얘기하다가 조사자가 다시 묻자 ‘아녀’하면서 구연을 시작했다.

일만 하구 그냥 그러다 죽었는데 집만 지키다 죽으니께 나중에 죽어서 개가 됐다나 봐. 뭐 죽어서 그 그랬는데 아들이 여럿 보는 그거르 불 줄 아는데 즈이 어머니가 죽어서 개가 되니까 그 개를 업구 실컷 돌아댕기며 아주 옛날에 그냥 팔도 구경을 시켜 갖다 놓으니께 다시 (녹음 불량) 그러니께 옛날 구경도 대니구 (청중: 그려.) 그래라 이거지. 괜히 우면서 하지만 저기 살지 말구.

【갈산리 설화 7】

탕정면 갈산리, 1993. 12. 17., 한혜인, 신향자, 황재영 조사

서춘례(여, 68)

구렁이 이야기, 수수깡이 빨간 이유

갈산1 뒤

* 정경렬 씨의 물사람 얘기 도중 엉뚱하게 구렁이 이야기를 꺼낸 것을 조사자가 다시 화제거리로 올리자 이야기를 시작했다.

(조사자: 구렁이도 맘대로 못 죽인다고 말씀하신 거 뭐 또 그런 얘기…….) 저기 우리 이모네가 그 저기 갑정동 저기 감나무가 있었어. 문앞이 칠 년 묵었다는 겨. 그 감나무가. (조사자: 예.) 아 근데 그냥 베어야 할 텐데, 죽었으니께, 다 베야 할꺼 아녀? 굴렁이가 참 굉장히 많아가지구 밑에다 불을 싸질렀대유. 그걸 죽일랴구 굴을, 아 그랬는데 하필 대무이랑 고기가 있어가지구 요렇게 나무가 그래서 인자 아 오늘쯤에, 아 벨랴구 불을 났는데, 내일쯤에 비야 되겠다 그러구선 뻘뻘. 그걸 불을 놓구선 아 벤 게 아니고 불을 났다. 불을 났는

데, 여름이니까. 이 근데 여기 저 이종동상이 화장실을 갈라구 보니까 아구 이만한 게 백겹
 썩만한 게, 이거만한 것이 그냥 그냥 가보니까 애가 기암을 해서 죽었드라. 화장실 가다가
 죽었으니 얼마나 기암을 하겠시유. 아유 그래서 사람들이 식구들이 막 쫓아가서 웬 일이나
 구? 그냥 죽었드라. 이 아줌마가 자리에 떠다 내려 놓구, 갠신히 그걸 들어다가 내비뒀대유.
 구랭이를, 내비두고 나니까 둘째 아들이 죽네 사네하고 앓드라. 그냥 애는 어떻게 해서 간
 신히 살려놓구. 그래 우리 이모도 아들 딸네서 9남매여. 9남매. 아주 그냥 그걸 살릴라구
 점점점점 사내애가 그냥, 20목은 아들이. 그러니까 그냥 뭐 그냥 안 갈 디가 있어? 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다 침 맞추구 못 고쳤어. 그래 어딜 가. 갈 디가 있어? 그래서 절로 쫓아 간
 기여. (발음불명) 깔깔깔 웃드라. 딴 사람이, 집에 와서 (발음불명) 비는 거여. 인저 비는디
 그랬는디, 배가 무서워서 못 가드라. 우리 이모는 모르지. 거 불을 끄고, 나온 건 지도 몰러
 유. 그래서 인자 개를 어떻게 막 그냥 저기하구 며칠을 경을 읽었다. 며칠을 경을 읽고 낫
 는데 그러는디 애가 그냥 하루 이틀 되니까 깨어나드래유. 그래가지구선 어디가서 약을 쓰
 라 그러더라 쓰라구. 약을 열 첩인가 이십 첩인가 지어 왔디야 맥이구. 하구 나니까.

* 남연우 씨의 석불이 얘기에 이어 서춘례 씨와 오순분 씨가 번갈아가며 구연을 하였다.

서춘례 : “딸네집엘 가는디 먼 고개 넘어들면, 한 고개 넘어가면 팔 한쪽 떼어지면 안 잡아
 먹지. 호랭이를 만나가지구. 한 고개를 또 넘어가니까 왜 그렇게 꼬부랑탱 할머니가 딸네집
 엘 가는데 이렇게 뭐여 고개가 많아. 또. (청중: 아유 떡장사래요. 떡장사래요. 떡을 이고 가
 는데 그랬다.) 아니 딸네 집이라는디. (청중: 딸네 집엘 가서…….) 딸네 집엘 가다 그랬다죠?
 (청중: 딸네 집에 가서 빗내고 오다가 떡이고 돌아오는데 그랬다. 아유, 어려워서 남의 집에
 가서 일해주구선 떡 은어가지고, 그래 그래 맞아. 그럼 그럼, 그렇겠지.) 다 아네. 그러면
 (청중: 아, 해 봐유.)아니, 다 아느 체 하구, 아 아는 양반이 해 보슈. 아니 그러다가 나중에
 는 팔 다리 하나도 없구, 당장 굴러다니다가 그나마나 몸뚱아리 다 집어 먹었다구,그러데”
 (청중: 웃음)

오순분 : “아 그나자나 난 그건 들었어. 그건 기억 나. (청중: 같이 해 봐여.) 그게 뭐 말하
 자면 수수쟁이 피 전설이여. 그러 수수쟁이 피 (조사자: 그건 어떻게 되는 전설인데요?) 그
 게 지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그거여. (청중: 남매가, 형님, 남매가 그렇카구선
 집엘 들어왔다. 문을 채우고 갔는디. 손을 디밀어 보라구 그러더라. 우리 엄만가 아닌가, 손
 을 디밀으니께, 호랭이가 손이 시커멓구 승글승글 하잖아, 털이. 우리 엄마 아니라구 말이
 여. 털이 있는 거 보니까 우리 엄마가 아니라구. 아니라구. 나중에 손에다 뭐 짹짹 발르드래
 유. 살마냥, 그래서 지 엄마니까 문을 따줬단 모양이여. 애가. 그러니까 (청중 : 도망가갔구)
 잉? 아녀. 도망 간 게 아녀. 한 놈은 도망 가구 한 놈은 못 도망갔지. 어린애는, 그러니까
 인자 지들은 잡아먹을라구. 안방에서 채우고, 옷방에서 채우고. 애가 옷방에서 큰애가 아유
 똥마려 똥마려 그러더라. 그러니까 인자 누구를 잡아먹는 뚝 깨먹는 소리가 나드래유. 잡아
 먹느라구. 그래갔구 인저 애를 인저 똥마렵다구 그래선 나갔어. 나갔는디, 막 새를 몰드라.
 개를 찾는라구. 그냥 그래가지구선 애는 나무로 올라가서 인자 있는디, 너는 뭐 발르구 올
 라갔냐구 그러더라. 그래서 인지 이 밀서 기름 발르구 왔다구, 그러니까 그걸 발르드래유.
 그래선 오라가다 팡 오라가다간 뚝 떨어져 죽드래요. 그래가지구선 떨어지는 바람에 그 수
 수수쟁이가 빨개졌다는겨 뭘. 막 찾았는디 (청중: 남매는 올라가서 하나는 해가 되구 달이 났

다 그리잖어.)

【갈산리 설화 8】

탕정면 갈산리, 1993.12.17., 한혜인, 신향자, 황재영 조사

남상덕, (여, 73)

갯바위 이야기

갈산2 앞

서춘례 씨의 수수깡 얘기 구연이 끝나고 이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조사자: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다른거 뭐 재미 있는 거 없을까요?) 어떤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집으로 시집을 갔는지, 시어머니가 있는지 앞을 못 보는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당체 그거를 며칠씩 굶으니깐 시어머니 해 줄게 있어야지. 솔에다 늘게 없어서, 어디를 이렇게 아주 헤메고 시어머니 어떡하면 살리나 살리나 땡기니깐, 그냥 개가 (청중: 웃음) 옛날에는 보리쌀을 먹고서 보리쌀 똥을 소복하게 뉘 냐드라. 그 보리쌀을 같은 건 그건 소화 안 되고 그냥 뉘. 옛날 우리네도 보면 개똥 보면 보리쌀 뉘 놀 때도 있어. 보리쌀 처먹고. 그래서 아구 이거 참 내가 아무리 벼락을 맞아 주드래두 우리 엄마 살려야 할 텐데. 저놈을 담아가지구 아주 허구헌 날 한나절을 쟁일 씻고 또 씻고 어서 깨끗하게 씻쳐서 자기 시어머니를 그거를 빨려서 갖다 해 줘다, 밥을. 해 주구서 인저 모 심는 일을 맡았는데, 일을 갖대유. 저기루 모심는 데루 그래서 일을 갖는다, 아 일을 갖다가 한나절을 허니깐 아주 노성벽력이 막 그냥 치구 후다닥 거리구 당체 하늘이 뭐 요란맞구 아구 당체 일을 할 수가 없드래. 그러니깐 그 권이 그 논 권이 여기에 죄진 사람이 물론 있을 테니깐 여기서 뇌성벽력을 하고 이러니깐 자실적으로 자기가 나오라구, 잡아내기 전에 나오라구. 여기에 물론 죄인이 하나 있다구. 그러면서 주인이 자꾸 나오래드래. 그래서 그 여자가 툭툭 털고 저 그것을 있다가 독으로 나오면서 제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이만저만해서 내가 똥을 씻쳐서 어머니 해 드리구 이렇게 큰 죄가 어딴느냐구. 그렇게 나서서 눈독에 와서 노성벽력이 탁 하더니 그 여자가 간 곳이 없드래. 그래서 간 곳이 없어서 아휴 그이가 벼락을 맞아서 어디로 가 죽었나부다 죽었나부다 했더니, 자기네 집에선 그 여자가 안 들어와가지구선 난리가 났드라 그 시어머니. 그런데 사흘만에 그때 그 여자가 온디, 저기서 들어 온디 보니깐 요만한 단지를 등허리에다가 짊어지고 오드래, 짊어지구. 다들 내부려 폐두 그게 떨어지질 않대요, 그 단지가. 그래서 자기 저 시어머니가 저기 와서 어떻게 무슨 단지를 네가 이렇게 위디가 달구서 왔느냐 그러면서 참 뒤에서 잡아당기니 그러니까 툭 떨어지드라. 근데 고기 요렇게 금이 소복하드래. 그 단지가 그렇게해서 인제 그거를 그걸루다 부지가 됐대유. 그 나리 임금님께 인제 상소를 올렸더니, 어디 그 산에 갯바위라구 있어. (청중: 산에 갯바위감?) 잉? 그 어디여. (청중: 청맹이지.) 청맹인가 어딘가. 갯바위 거기 그 돌을 (청중: 아까 아줌니 얘기헌 게…….) 돌을 쳐서 거 가운데서 그걸 꺼내서 가려줬드래. (청중: 효자, 효자를.) 그럼 그 했으면 또 소용없네. (조사자: 아니예요. 아니예요.) (청중: 웃음. 비슷비슷헌데 달려 달려, 쪼끔.) 그래서 효자를 어떻게 허구헌 갯 쓴 바우가 있어. 거기 갯바위

라고 있어, 크게. 거기서 금단지 끄넨 바뉘라구 그러데. 갓바우라고 있어. 이렇게 갓 쓴 거 모냥 갓 쓴, 두 개가 있어. 그런데 거기서 끄넨거라구 그러데. (청중: 둘이가 각각 갈라져, 그래 틀러 틀리니께 얘기허. 청당이 거기는 우리 어렸을 때부텀 이렇게 반 딱 갈라졌는디, 거기 이만치 큰 퍼석이 참 쓰러지면 헐어질 것 같다고 그냥 있더라구.)

【갈산리 설화 9】

탕정면 갈산리, 1993. 12. 17., 한혜인, 신향자, 황재영 조사

이영희, (여, 80)

지렁이국 먹고 눈 뜬 사람

갈산2 앞

(청중:아쭙니 잘 하시잖아요.) 옛날에 저기 노인 저기 뭐 저기 고부가 사는데 할머니가 눈이 어두워가지구 눈을 못떠가지구 앉아서 주는 것, 가까이 있는 것만 잡수시는디, 가까이 계셔가지구 고기도(녹음 불량) 지렁이를 많이 잡아다가 그놈을 과서 갔다 드렸는디 인제 그걸 맛있게 잡숫대유, 지렁이를. 맛있게 잡숫구선 인저 누가 뭐 그 냥반이 맛있거니 허니께 와서 아유 할머니 저거 지렁이국 아니유?! 허니께 (청중:아주 박장대소하시며) 잉 그러구선 눈을 번쩍 떴대유. 눈을 번쩍 떴대요 그 할머니가. 그래서 효자 노릇을 했다구 그러데. 그 소리만 알지 뭐. (조사자:한마디 하시라니까 한마디만 하시잖아요.) 효자긴 효자지. 지렁이를 지렁이. (청중:할머니가 시어머님한테 잘 해갔구선 효자상 효부상 탕잖어. 상 타신 할머니여.)

【갈산리 설화 10】

탕정면 갈산리, 1993.12.17., 한혜인, 신향자, 황재영 조사

오순분(여, 65)

구렁이가 된 시어머니

갈산2 앞

또 뭐 옛날에는 구경을 하두 안 땡겨갔구 그 뭐여, 죽어서 구렁이가 됐다네. 구렁이 돼서 맨날 그냥 살아서나 죽어서나 쌀, 쌀 광 그 저 쌀, 못 믿어서. 죽어서도 살아서도 그러더니 죽어서도 구렁이가 돼 갔구 그 저 저저 뭐라나. 다리 밑에 어디가나 있어갔구는 며느리가 쌀 푸러 가며는 꼬끔꼬끔 이란다네. 구렁이가. 구렁이가 되갔구 (청중: 꼬끔 퍼 가라구. 웃음.) 잉 꼬끔꼬끔 그란다. 그럼 쌀 푸러 갈 적마다 꼬끔꼬끔 한다니 저기저기 구렁이가 개가, 시어머니 말이여. 살아서도 밥할라면 꼭 내주구 (청중: 응, 시어머니가 하두 지독해서 죽어서도 구렁이가 돼갔구 쌀 푸러 가면 꼬끔꼬끔 허는구먼) 잉 그랬대유. 꼬끔한다구. 얘기를 하테, 어른들이.

【갈산리 설화11】

탕정면 갈산리, 1993.12.17., 한혜인, 신향자, 황재영 조사

서희원, (여, 76)

수수깡이 빨간 이유

갈산2 뒤

* 남연우 씨의 구경 못 해서 개가 된 사람 얘기가 끝나자, 서희원 씨를 중심으로 한 마디씩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동아밭 얘기 해 줄까? 하늘로 올라가 해가 되구, 그 얘기했어? (청중: 아니여. 해봐. 아니 똑 같은가 똑 같은가, 다시 해여.) 아니 처음에는 처음에는 잘 모르겠어. 하여튼 애들 둘이가 있는데, (청중: 처음에는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거 몰러. 하두 어려워가지구. 애들이 배가 고파서 얻어 먹으러 갔는데, 얻으러 갔는데 (청중: 얻으러 갔는데, 그랬죠?) 아니 그 어머니가, (청중: “베 짜주러 갔죠. 그것도 여러 종류여.” “그거 그거죠?” “잉, 하나 떡 가지구 밥 얻어다가 집에 있어라. 둘이여 남매. 잉 그러 그러, 남매디 밥알을 떠주고 하니께는 이만큼 그러니까 그눔을 이고 왔어. 이고 오다가 아 오니까 아니 호랑이가 아 그게 뭐냐구 나 달라구 그러니께,”) 아, 난 그거 아니구. (청중: “아유 난,” “난 도대체 그렇게 애길 듣질 않았어.” “아 가만 뒤.” “애들 배가 고파서 줘야 하니께 안 된다구 하니께는 아이 그럼 너 잡아먹는다구” “아, 그 얘기면 아니야.”) 응 “잡아먹는다”구. 아, “그럼 이거 줄게 잡아먹지 말라”구 인제 그랬어. 그러구선 인제 또 오니까는 또 한 군데서 또 그랴. “너 그거 네 다리 라두 떠 주구, 손이라두 떠 달라구. 그래야 너 죽이지 않는다”구. 그러니께 인제 그눔을 또 떠 쫓어. 떠 주구서 또 집에를 오니께는, 아 이젠 마자까지 떠 달라구 그러더라. “너 그 짝 팔 마자 떠줘. 그래야 너 죽지 않아.” 그러니까 그러더라. 그랴 마저 떠 주니까 그 몸뚱이만 남았잖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집으로 떼굴떼굴 그냥, 응, 오니까는 (청중: 홀랑 집어 먹어 버렸어?) “니 똘똘이 할러 다 먹어야 되겠다”구. (청중: 죄 집어먹어 버렸구랴.) 잉, 홀랑 집어먹어 버렸지. 그라고 저 애들은 집에서 사무 울고 배가 고파 죽겠는디 이눔의 호랭이가 와서 “애, 니 엄마 왔다. 이리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그러니께 아, 보니께 즈이 엄마가 아니고 호랭이 아냐? (청중: “아니, 손을 좀 디밀어 보라구, 우리 엄마 손은 매끈매끈하구.”) 그러. (청중: 디밀어 보라구 그러니께…….) 응, 그러. (청중: 손을 디밀이니께, 우리 엄마 손은 아니라구. 어디 가서 참 뭇 좀 발르구 그러더라. 손을 디밀랴. 매끈매끈허구 그러니께 문을 따 쫓대유. 따 주니까, 호레이더라. 그래가지구선 도망을 갔다. 도망을 가가지구서는 인제.) 하루 정일 (청중: 낭구, 고 앞에 낭구가 있는데, 거길 올라 갔대, 꼭대기를.) 그러.(청중: 올라가니께 호랭이가 막 그냥, 거기 또 구멍이 있었다네. 웅달쌔이 있었는데, 고기 가서 요렇게 앉았으니께 그 호랭이가 나와서 막 이랴구 저랴구 하더라. 시암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께 애들 둘이가 물 비쳐갔구 들어가 있거던,) 그러. (청중: 그래서 그냥그냥 거기를 들어가나 어떻 하나 하다가 위를 이렇게 쳐다보니께 위애가 있더라, 애들이.) 그러. 그러니까 지가 겁이 나니께 인제 “하느님 하느님!” 살려달라구. (청중: 그래서 하느님 하느님, 나 좀 살려 달라구. 새 동아밭하구 흔 동아밭하구 좀 내려 달라구 그랬다. 그래서 인제 새 동아밭이 내려 왔대유. 그래서 인제 그걸 남매가 낭구에서 올라 타구 인제 올라가는데, 그걸 호랑이가

들구신) 저두 그랬지. (청중: 하느님 하느님 달라면 혼 동아밭하구 새 동아밭하구 좀 내려 달라구. 혼 동아밭을 내려 주니께, 혼 동아밭을 타구신 반 올라가니께, 딱 끊어져서 꼼짝없이 죽었다, 그 호랭이가. 그래서 수수깡이에 걸러가지구 그냥 수수깡이 피가 그게 호랭이 피라, 그게. 난 그거 하나 잊어버리딜 않았어. 그라대. 호랭이 피라. 그래. 그 또 하필이면 똥구녕을 꼭 찢러가지구.(웃음). (청중: 그러니까 말을 잘 못 된 기여. 새 동아밭을 달라구 해야 하는데.) “그려.” (청중: 나쁜 놈한테 새 동아밭을 쥐?) 새 동아밭을 주겠어? 호랭이를. 아무래도 혼 동아밭을 내리지. (청중: 오늘 재미있었네.) (청중: 새 동아밭 혼 동아밭 하니께 인저 새 동아밭을 내려 보냈는데 새 동아밭 타고 갔는데 그 소리 듣고 혼 동아밭 (녹음 불량) 한참 올라가다 반쯤 가서 딱 떨어져 가지구 수수깡이에 턱 걸쳐서, 수수깡이 피가 그게 호랭이 피래.) (청중: 수수깡이 피 전설이여. 웃음)

나. 탕정면 마을 2 (매곡리)

2) 마을개관

【탕정면 마을 2】

337-840 충청남도 아산군 탕정면 매곡리

1993. 12. 17., 유주연 조사

탕정면 매곡 1리는 135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농촌으로 주민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한다. 마을 내에 교육 시설이 없어서 인근 마을로 나가야 한다.

3) 구연자

【매곡1리 구연자】

아산군 탕정면 매곡1리, 장윤섭(張允燮)남, 76

1993. 12.17., 권은주 조사

온화한 인상에 작은 체구, 말끔한 외모에서 학식이 있어 보인다. 구연 시 눈을 깜박깜박 하는 버릇이 있으며 말 시작과 끝에 “이런 것도 얘기 꺼리가 돼나?”하면서 확인을 한다. 연세에 비해 기억력이 좋으며 “권선징악”을 강조하였다.

4) 설화자료

【매곡1리 설화1】

매곡1리 새마을 회관, 1993.12.17., 유주연, 박은실, 권은주 조사

장윤섭(남, 76)

운수 선생 이야기, 귀축도의 유래, 박문수의 포원, 금장사 이야기, ‘老鼠下田’의 묘자리 이야기

단이며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서서 정위 벼슬을 했어. 정위는 시방으로 말하자면 에 법무장관이여, 죄인 다스리는 법무장관을 했는데 에 하루는 교회 용왕이? 이거 저 한참 좀 쉬세요, 우리. (조사자: 하하하, 감사합니다.) 교회 용왕이 그이 그이 그때 참 아니야. 운수선생이라고 하는 이가 있어, 운수선생. 운수선생이라는 이가 있는데 아주 용한 이여. 근데 거기 어부가 하나 있는디 그 운수선생한테 가서 점을 하고서 피기를 잡으면 꼭 그날 살거나와.(조사자: 예.) ‘아무 데 가서 잡으면 피기 암만암만 나올게다’ 해서 꼭 아주 하루 먹을 건 꼭 나와. 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 교회용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놈을 그냥 뒀다간 이 저기 운수선생이라는 놈을 그냥 뒀다가는 어족이 멸족되겠다 말이여 피기 다 없어지겠어. 아 그래서 에 이 운수선생이라는 이놈을 죽여야겠다고. 그 교회용왕이 옛날에는 말하자면 하느님이 용왕한테 어디 비 주라고 명령을 하는거거든. 아 그런디 이 인저 그때 마침 참 가물어가지고 백성이 비를 몹시 기두리는 땀디 이 저 교회용왕이라는 이가 운수선생을 찾아가서 “시방 지상에 가물음이 심해서 백성이 야단인데 원제쫘 비가 흑 오겠느냐” 하니까 “아무 날 아무 시며는 몇일 시방으로 말하면 몇 치 몇 분까지 오겠다 암만 오겠다.” 아 그놈 뜨겁게 얘기하는데 그놈 죽어야 하느디 만약에 그때 “비가 안 온다던지 또 오더라도 네 말한대로 자수수치가 모자르던지 넘는다 하면은 아주 목빌 내기를 하자.” “그렇게 하자.” 운수선생이 그랬단 말이여. 그렇게 하자고 대답을 했어. 아 그런디 저 그날만 지두리는게라, 교회용왕이. 아 그런디 옥황상제가 명령을 했는데 그날 그시에 암만아치 암만을 비를 주라고 명령을 했거든 교회용왕한테 아 이놈한테 꿈쩍없이 지게 생겼어. 자기가 목이 갈리게 생겼어, 교회용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께 자기는 죽기 억울하고 안 되겠어. 그러니겐 운수선생을 찾아가서 이 하는겨 아 저 찾아가기 전에 비를 시간도 조금 어기고 옥황상제 명을 어겼단 말이야 시간도 어기고 수량도 조금 어겼단 말이야. 조금 어기고 쫓아가서 “너 이놈 아무 날 아무 시에 비가 암만 온다고 하더니 시간도 조금 틀렸고 수량도 틀렸다.” 말이여. (조사자: 예.) “너 이놈 목을 비자.” 그러니께 교회, 저 운수선생이 하는 말이 “조금 있으면 니가 죽을 테니께 가만 있어라”(조사자: 웃음) 아 이놈이 가만히 생각하니께 교회 용왕이 생각하니까 사실은 지가 죄를 졌거든 잉 옥황상제한테. 아닌게 아니라 참말로 지가 죽게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이 위진이라는 이가 그 참 저 옥황상제한테 가서 정위 벼슬을, 정위 노릇을 하고 그 말하자면 죄인, 천상의 죄인 다스리는 거여, 죽이고 살리는 거야, 위진이라는 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 그래서 위진이한테 찾아가서 사람으로 환생해 가지고서 찾아가 가지고서 “내가 옥황상제한테 죄를 졌는데 나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겐 인저 위진이라는 이는 당태종하고 장기를 두는 게라. 장기를 두는디 당태종한테 가서 참 인저 애걸을 했어, 당태종의 신하니께 당태종도 애걸하니겐 “그렇게 하라”고 자기 신하니겐. 그 시간만 넘기면 된단 말이야. 위진이가 하늘에 올라가는 시간만 넘기면 돼여. 고 시간에 죽이는 건께, 죄인을. 그래 위진이를 불러가지고서 장기를 두는 게라, 고 시간 넘길려고. 장기를 땅땅 두는게라. 아 두는데 고 시간을 넘길려고 하느디 고 시간이 되니깐 위진이가 깜박 이렇게 존단 말이여. 아 이사람 장군받으라고 냅다 당태종이 소리를 냅다 질르니겐 깜짝 놀라 깨면서, “아 천상에 올라가서 교회 용왕 목을 베고 왔습니다.” 그러. (웃음) 아 그래서 당태종이 생각하니께 교회 용왕의 부탁을 받았는데 헛받았던 말이여. 잉? ‘아 이거 내가 운이라 할 수 없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날 저녁에 애 당태종한테 교회 용왕이 목에 피를 줄줄 흘리고 와서 하

는 말이 “내가 저 대왕한테 부탁해서 혹시나 살 줄 알았더니 할 수 없이 주었소이다. 그러니겐 내가 대왕의 명을 10년을 감하고 갑니다.”하고서 해서 당태종이 10년을 덜 살았는겨. 이것도 얘기지? (웃음)

자기 어머니하고 참 산중에서 단 모자 사는데 만날 에 나무해다가 자기 어머니한테 지성으로 공양을 했었잖은가 봐. 알잖아 다,잉? 그랬다가 무슨 공준지도 모르겠네. (조사자: 평강공주.) 평강공주지? 잉. 평강공주가 노다지 울었어 응? 울었으니께 아버지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 대왕이 하는 말이 “애이, 저년 온달이한테 시집보내야겠다”고 그랬었잖아, 응? 그랬었는데 결국은 이게 다 장성해가지고선 공주니께니 시집보내자면 어디 같은 제왕 아들한테 보내야 할텐데 중매를 하느라고 하니겐 이 저 공주가 그 눈치를 알고서 저 아버지 어머니한테 “저 어디 시집 보낼라고 하느냐?”고 그라니께 “그렇다.” 그러니께, “저는 온달이한테 아니면 안 간다”고 했잖아. 그 어머니란 아버지랑 깜짝 놀래가지고선 “아 그건 내가 너를 하두 구여워서 농담으로다 한 거지 진짜를 한 것이 아닌데 글리 간디서야 말이 되느냐?”고 하니까 “아아 어쨌든 아버지 대왕이 부왕께서 온달이한테 장 보낸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두 두 지애비를 섬기느냐고 그랬잖아. “다른 데로 못 간다”고. 그래서 결국 “아 그러면 내년 마음대로 하라”고 내박치니까, 나간다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보물을 싸취가지고서 떠나가지고서 온달이 찾아간 거 아니여? 그래가지고서 왜 온달이하고 내외가 됐지 그랬다가 나중에 온달이를 참 글을 가르치고 말 타는 것 칼쓰는 거 가르켜 가지고 온달이가 거 장수노릇까지 하고 그랬잖아 응? 그거지 뭐 그거 다 알잖아들.

호산매곡1 앞, 뒤

우리나라에 별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별형이 (조사자: 벼랭이요?) 별형이. (조사자: 벼-령-이요?) 별형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별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조사자: 옷나라?) 오뉴월 장마에. 아 축나라 사람이야. 참 축나라의 별형인데 별형이라는 사람이 오뉴월 장마에 떠내려 가서 윗나라에 가서 걸렸어. (조사자: 위나라예요?) 윗나라 윗나라 윗나라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세워서 임금을 세웠어 임금을. 그랬다가 임금을 어떻게 잘못해서 어째서 쫓겨났어 .쫓겨나니깐 이 사람이 임금 노릇하다 당장 쫓겨나니까 아무 신세도 안 됐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어서 원혼이 된 거이 시방 뼈꾸기가 된겨. 그래서 뼈꾸기가 이 이름이 귀축도야. (조사자: 네 네.) 축도새야 축나라도 도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거야 뼈꾸기 이름이 귀축도 새여. 그래서 애 위나라 가서 임금 노릇 하다가 쫓겨나고 보니까니 팔자가 인저 불여구여 뼈꾸기소리가 그게 불여우여. 아니불(不)자 같알 여(如)자 돌아갈 귀 (歸)자여. 돌아가는 것만 못하다고, 축나라로 돌아가는 것만 못하다고 그래서 귀축돈데, 불여귀 귀축도. 그래서 그 인저 그거 그것 글진 것이 ‘불여귀 불여귀 행불여귀 중불구’라. 내 거기다 써 줄께. 헤헤, 말이 될란지는 모르갔구만서두 불여귀 불여귀 행불여귀 중불구라, 못하다 돌아가는 것만 같지 못하다 만날 뼈꼭뼈꼭 하매 축나라로 가고 싶어한단 말야. 행불여귀 중불구라. 항상 돌아감만 같지 못하다 하면서 일찍이 가던 안 해여. 가던 못 해여. 만약에 이거 같을 여(如)자가 이게 같아다 하지만 만일 이라는 자야. 잉? 만일. 잉? 만약이라고도 하고 만일이라고도 하는기야. 만일 돌아가는 것만 같지 못하면 돌아가면 잉? 돌아가면 될텐디 말이여. 왜 무슨 마음으로 하심(何心)은 무슨 맘으로 만날 돌아가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하면서 불여귀 불여귀만 찾느난 이 말이여. 하심유작 불여귀요 왜 불여귀만 찾느냐 이말이여. 계

위진이라는 사람이 촉나라 사람이 6, 7월 장마에 떠내려 가가지고 윗나라에 걸렸는데 윗나라 사람이 임금을 삼았었던 말이여. 그랬다가 인자 거기서 잘못해서 쫓겨났어. 그래서 도로 촉나라를 가고 싶어서 참 붙여귀 붙여귀하는 기여. 촉나라로 좀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그래서 원혼이 돼서 뼈꼭새가 됐다는 기여.(웃음)

아들을 하나 뒀었지. 늦게 늦게 아들을 하나 뒀었는데 박문수가 박어사 적에 에 인저 그 역 줄들은 먼저 어디 보내고 자기는 그 산중에 혼자 이렇게 가는데 아 인저 말하자면 잘못하는 놈 숙탐해서 불러다가 취조하고 이려는건가 봐. 산골길을 혼자 가는데 그 아 파집으로 가는데 어디서 처녀 하나가 느닷없이 나오더니 살려달라고 애원을 한단 말이여. 근디 즐지에 어떻게 살릴 도리가 있어야지, 잉? 무인지경에서. 그러니까 임시 그 옆에 참 산골이니까니 길가에 참 덩풀이성한 디가 있는디 우선 걸리 인저 들어가 숨으라고 했단 밀이여, 아 그러더니 조금 있다 어떤 놈이 칼을 들고 쫓아오며 여기 처녀가 왔ندی 너 못봤냐고 그러거든. 근디 무인지경에 못 봤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됐단 말이여 봤다고 하자니 죽겼구 못 봤다고 하자니 자기가 죽겼구,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저길루 들어갔다고 아르켜 줬어.(조사자: 예.) 그러니까 이놈이 들어가서 폭 찢러 죽이고 갓빼진단 말이요. 중놈이, 중놈이야. 쫓아온 놈은, 칼 가지고 쫓아온 놈은. 그래서 이거를 그 여자는 인저 결국 죽었ندی 생전 그것이 포원(抱怨)이라. 포원이여. 자기 인저 어사다 끝나고 한 다음에도 생전 그게 포원이여. 어떻게 했으면 내가 그걸 살릴 뻔했었던고 그걸 못 살린 게 아주 포원이 되서 참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거 그 처녀 죽은 뒤에 아들을 낳는데 아주 참 얼굴도 좋고 재주가 초일에 영리하고 한 아들을 낳ندی 개가 한 칠팔 살 여나쁜 살 됐ندی 글을 자기 앞에서 읽고 그러ندی 그 정승이니까 재상이니까 참 인저 퇴조한 재상이니까 그 친구들이 높은 벼슬했던 친구들이 일상 와서 같이 놀고 이런단 말이여. 자기 사랑에. 자기가 그런 애길 한번 했어. 자 내가 과거 일상에 약시약시한³⁾ 일이 있는디 아 그러니깐 참말로 내 어사 적에 아무 디서 어는 처녀가 살려달라고 해서 했ندی 그걸 못 살렸ندی 그걸 어떻게 했으면 살릴 뻔했던가? 여러분들 의견들 얘기 좀 해보라고 이런 애길 했시요, 박문수 박어사가. 그러니까 그 돌아앉아서 글읽던 그 아들이 책을 덮어놓고 돌아앉으면서 “암행어사 출두 소리 한마디만 했으면 됐을 거 아니요” 이렇게 하고 애가 피를 토하고 죽었시요. 그러니까 그 처녀 죽은 혼이여 그게. (조사자: 아.) 그러니깐 자기 아버지 원수 갚느라고 태어났다가 억울하게 참 아 앞에서 아들 죽는 게 얼마나 그 애석한 일이여, 응? 그래서 박문수 박어사가 그거 한번 포원이 됐었다는 얘기에 그런 얘기가 있지. (웃음)

그 전에 누가 옛날에도 아마 이 옛날에 요전에 조선이지만 중국하고 통상이 됐어. 연륙⁴⁾이 됐으니까. 옛날에도 통상이 됐ندی. 중국 다니면서 금장사를 하ندی 저울을 둘을 가지고 다녔어. ‘사는 저울’ ‘파는 저울’ 그 그러니까 인저 말하자면 이익을 많이 낸 거지. 그 에 사는 저울은 참말로 그러니까 추를 무겁게 하고 파는 저울은 추를 가볍게 하고 저울을 둘을 가지고 다니며 그렇게 해서 큰 부자가 됐었는데 그 아들 하날 잘 뒀는데 손자가 참 잘 생겼었어. 손자가 아주 참 인물 좋고, 체격 좋고, 재주 좋고 (기침) 공부 잘 하고 아주 훌륭한 아들 형제, 그러니까 손자 둘을 뒀었지. 그러고선 인저 참 금장사하던 이는 죽었ندی. 아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은 양심이 있는 이라. 우리 아버지가 이 금장사를 해가지고서 남에게 못할 노릇 많이 해서 돈 번 것은 다 안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해야 좋다는 생각

을 해 가지고선 자기는 인저 좋은 일만 한다고 그 자기 아버지가 벌어논 재산을 그저 자선 사업만 하는 게라 아무디 고. 착한 좋은 일이라면 무조건 돈을 회사해 가며 좋은 일을 했어요. 많이 했ندی. 아 그렇게 하다 자기 아들 그 형제 잘둔 아들이 그만 턱 죽어 뺨진단 말이여, 그러니께 이 사람이 그만 환심⁵⁾이 되가지고 ‘자 옛날부터 착한 일 하던 사람이 잘 된다고 악한 일을 하던 사람은 안 된다고 하더니 나는 착한 일을 했ندی도 그 참 잘 둔 아들을 둘 둘을 죽였으니 이거 이 세상엔 악한 사람이 잘 잘 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탄식을 하니거시니 건병 중에서 외더랴. “자’ 그게 아니라 느이 아버지가 남에게 악한 일을 많이 해서 니 아들 그 형제 둔 것이 너 보면은 참 잘나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 녀미 역적질 할 놈이여.” 옛날엔 참 역적 나면 삼족을 멸하잖아, 삼족을 자기집, 외가집, 처가집, 다 멸하는 거거든. 그러니께 사위하나 잘못 뒤도 그집인 망하고 외손자 하나 잘못 뒤도 그집인 망하고 그러는 뺨이여, 옛날에는. “그놈이 역적 역적이여, 역적될 놈이여, 그놈 뺨으면 느 집안 망하라고 태어난 건 니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미에 니 집안 앞으로는 잘 되게 해주려고 그 놈을 죽인거다. 그리고 앞으로 인저 그만 그만 못지 앓을 아들을 두게 될테니 너 서러워하지 말아라.” 그러더래. 그래설램이라 참말로 억울하고 서러운 얘기가 인저 생각이 못했었는데 아닌게 아니라 그뒤로 참 아들을 형제 또 낳단 말이여. 늦게 근디 역시 참 인물 좋고 훌륭한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집안이 잘 됐다는 얘기가 있어. 그러니께 착한 일을 하라 이 소리지. (웃음)

어떤 사람이 어느 동네 가서 부재가 머슴을 살았어. 부재가 머슴을 사ندی, 그 참 아주 동네서 아주 착실하다고 하고 부재가 인저 어린네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가서 머슴을 산거지. 그러니께 음마 조금 크니까 심부름도 해가며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아들이 아니 아버지가 죽었어. 머슴애 아버지가 죽으니까 주인집 발구탱이 어디다 거 모이를 썼단 말이여. 근디 개가 상젠데, 옛날에 조금 낮게 사는 집은 머슴 사람이 따로 있잖아? 근디 옛날엔 과객도 많았고 어느 중이 하루는 과객질을 하러 왔ندی 개하고 같이 자게 됐단 말이여, 자ندی 중이 보니까 애가 참 인물도 괜찮고 심덕도 괜찮은 거 같으고 헌디 머리 꼬리에 상제란 말이여. 그래서 밤에 자다가 인저 얘기 얘기하ندی 내력을 얘기하ندی 지 아버지하고 한집에서 참말로 같이 살다가 객지에서 와서 지 아버지가 죽어서 쥐인집 덕분에 주인 발구탱이다 지 아버지 모이를 썼다고 그런단 말이여. 근디 중은 도사여, 지리를 잘 아는 이여. 모 자리를 보는 이여. 그래 그 중은 산천 구경하러 다니는 인디 그 근처 ‘老鼠下田’형이라는 모자리가 있어. 늙은 쥐가 곡식 심은 밭으로 내려간다는 형국이지? 곡식, 노서화전, 늙은 쥐가 밭으로 내려가는 형국이란 말이여. 그래 그걸 그 근처 봐 두었고 그걸 살피러 가고 했었는데 마침 개가 상제란 말이여. 근데 애가 신통해 보여, 그래서 밤에 자면서 인저 서로 참 얘가 되고 이쁘게 봤기 때미 그래 느이 아버지 모이 내일 좀 가보자. 가보니까 참 아무렇게나 발구탱이에 썼더란 말이여. 그래서 그 중이 하는 말이 “내가 느이 아버지 모자리 하나 잡아 줄 테니 쓸 수 있겠느냐?” 하니까 “잡아 주시면 쓰겠다”고: 그래 가서 참 ‘노서하전’ 형이라는 늙은 쥐가 밭으로 내려온다는 그런 형국을 알으켜 주면서 “여기다 쓰면 너 10년후면 너 장가들어서 잘 살거다.” 떠났ندی 애는 인저 주인집에서 참 신통해 보였고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길 해가지고선 주인집에서 장비 다 대주고 인력 대줘서 거기다가 모이를 했어. 옛날에는 왜 다 자기 산 아니라도 다 모이 썼잖아? 남의 산이라도. 거기다 썼는데, 아 이 놈이 거기다 모이 쓰고서 불과 3년 안쪽에 죽어 뺨졌어. 장가 드는 건 고사하고. 아 그래 이 중은

개를 내가 좋은 자릴 써줬으니까 이놈 한 10년 후에 시방쯤엔 장가들어서 아들 낳고 잘 살으려다 하고선 거길 슬슬 또 갔더라 말이며, 그 동네를. 가서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앞에 가서 개를 물어 봤단 말이며, 동네 사람더러. 아, 그러니깐 “아 여기 아무개가 살았는데 개 시방 사느냐”고. 하니깐 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놈 어느 미친 중놈이 와서 지 아버지 어디다 모이 쓰면 뭐 장가들어서 잘 산다고 하더니 그 모이 써서 그 놈 죽어 뺏겼다”고 아 이러거든. 아 중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큰 착오를 했어. 좋게 한다는 것이 아 이거 내가 이렇게 잘못 봤나. 후회가 돼서 거길 들어가질 못하고 그 모자릴 가본 거라, 모자릴 가보니깐 모자린 여전히 ‘노서하전형’ 아주 좋은 자린데 어째 이럴까. 그럼 내가 뭘 잘못 봐서 그럴까. 아 그러고 올라갔다 이 사람이 걱정이 돼서 보니까 아 그 건너 마중쪽에 그전에 안 뵈던 고갱이 바위가 보이거든 ‘고갱이 바위’ 아 내가 저걸 못봤구나. 저거 전에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즈걸 내가 미처 못 보고서 아르켜줘서 이거 남을 큰 저길 했구나. 이러구서는 가서 개 내력을 인저 개 아버지 내력을 물어 대강 보니까, 그러니까 경상도서 올라온 사람인데 저희 고향에서 사람을 살인을 두번이나 했다는 거여. 사람을 두번이나 죽였다. 사람을 죽이고선 말하자면 피해 도망질해서 거기 와서 머슴 살았다는 거여. 시방은 주민등록에 뭐에 뺏히 참말로 못하지만 옛날에는 저 전라도나 경상도가서 무슨 죄 지고서 북쪽에 가서 살아도 피할 수가 있고 북쪽에서 죄지고 남쪽에서 살면 피할 수 있잖아, 옛날에는. 걸어서 몇 달씩 가는 때가 되서. 그러면 그렇지. 내가 잘못 보던 안였는데. 그래서 “저기 저 바위가 옛날부터 있었수, 없었수?” 물으니까는 “아 그 바위 그전에는 없었는데 아무 해에 장마가 지더니 장마가 폭원해 오더니 그만 사태가 나가지고 거기 산이 똑 떨어지더니 그 바위가 생겼다.” 이거여. (조사자: 아.) 그러면 그렇지. 사람을 두 번이나 죽였으니 될 리가 있냐 말이여. (웃음) 그래서 없던 바위가 하늘서 천둥 번개해서 벌써 바위를, 고위⁶⁾ 아 앞에 고위 앞에 쥐가 얼만가 봐. 아 쥐 형국에 고양이가 마주쳐다 보고 있으니 잘 되겠어. 아, 그러니까 살인을 두 번이나 했으니 좋은 자리 들어가도 안 된다, 이 소리여.(웃음) 그래도 얘기가 되겠어?

다. 탕정면 마을 3 (명암리)

2) 마을개관

【탕정면 마을 3】

337-840 충청남도 아산군 탕정면 명암리

1993. 12. 16., 최소정 조사

탕정면 명암리는 4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주민들은 거의 농사를 짓고 살아가고 있으며, 마을 내에 교육시설은 없다.

3) 구연자

【명암리 구연자 1】

탕정면 명암리 668. 이기순(李琪淳) 남, 59

1993. 12. 16., 권은주 조사

작은 키에 보통 체구. 왼쪽 눈에 사마귀가 있다. 온화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며, 옷차림이 깔끔하고 농사짓는 분 치고 학식이 있어 보인다. 구연 시 특별한 버릇은 없으며 조용조용 얘기한다. 알고 있는 것을 성의껏 알려주며 책으로 나온 자료들을 보여주었다. 구연 자료로는 <지므레의 유래>가 있다.

【명암리 구연자 2】

탕정면 명암 4리 668. 이순덕(李順德) 여, 56

1993. 12. 26., 권은주 조사

둥근 얼굴에 통통한 몸집. 연세에 비해 조리있게 말한다. 구연 시 존댓말과 손동작을 한다. 말은 잘하나 동네 사람들과 용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였다. <정주나무>에 대한 이야기와 <도깨비 이야기>를 해주었다.

【명암리 구연자 3】

아산군 탕정면 용암 4리 605 전해운(全海雲, 여, 61)

1993. 12. 26., 권은주 조사

작은 눈에 보통 체구를 가졌고, 수다스럽고 말에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 구연 시 자주 웃으며 표정 연기와 손동작을 사실적으로 연출한다. 구연 자료에는 <쌍바위 이야기>와 <도깨비에 홀린 사람 이야기>, <감장수가 도깨비에게 홀린 이야기>가 있다.

4) 설화자료

【명암리 설화 1】

탕정면 명암리 노인회관, 1993.12. 26., 유주연, 권은주, 최소정 조사

이기순(남, 59)

지므레의 유래,

그 얘기부터 해야 되겠네. 이 동네가 지므레라구. 지금 명암4구가 부락이라는 한 동네가 자연 부락이 있구 가락 바위라는 동네가 또 자연 부락이 있구 여기는 지므레라구 지금 부르는데 원래 김호레라고 했대요. 왜 김호레라고 했냐면은 쇠 금(金)자 하고 성 김(金)자지. 좋을 호(好)자하구 예도 예(禮)자. 김씨가 많이 살아서 김호레라고 불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부락이라는 자연 부락에는 아직 들은 바 없고 가락 바위라는 데가 있는데 지금 저수지가 있고 서울 사람들도 저수지에 낚시질을 많이 와서 해요. 지금도 가락 바위라는 데가 바

위가 아마 이상한 바위가 있어가지고 바위가 가락국수 형상으로 생겼다 해서 그걸 따서 가락 바위라 불렀대요. 그리고 부락이라는 자연 부락의 뒷산에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옛날에 그 바위가 울었대요. 한번 울기 시작하면 사흘을 울었다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동네 주민들은 그 우는 소리를 모르는데 타동 사람들이 그걸 알았다는 거여. 그 동네에 화가 불화가 생기고 말야 그랬다는 거여. 그래서 주민들이 그 바위를 가서 때려 부셔서 바위를 때려 냈는데 바위 속에서 피가 나오는데 피가 사흘을 두고 나왔다고 그래요, 피가. 그래서 바위를 내고난 뒤부턴은 동네에 불화가 없고 평온한 부락이 됐다는 이런 전설이 내려왔다구 그래요.

【명암4리 설화 2】

탕정면 명암리 노인회관, 1993. 12. 26., 유주연, 권은주, 최소정 조사

이순덕(여, 56)

정주나무 이야기, 도깨비 이야기

그전에 여기 명암리에 소나무 아니 느티나무로 된 정주나무가요 한 천평은 덮었대요. 그렇게 있었는데 그 정주나무는 일본시대 때 심어 놓고 갔는데 해방이 됐지유, 우리 나라가. (청중: 일본 시대가 아니지. 일본 놈들이 버렸지.) 일정 때 심었어. 심어서 그 정주나무를 성왕님으로 모셨대요. 옛날에 성왕님 있었잖아요. 지금도 다 없어지지는 않았지. 어느 고을에 가면. 그랬는데 그 밑에 밭이 있었는데 김씨네 어떤 할머니가 얘기가 배서 여덟 달이라고 그랬지? (청중: 칠 개월.) 칠 개월. 열 달만에 낳잖아요. 그런데 칠 개월이 되서 밭을 메시다가 하도 어려워 갔고 저녁때 한 5시쯤 가서갔고 막 이렇게 두 손을 빌으시면서 성왕님 성왕님 오늘 저녁에 내 뱃속에 있는 애기 좀 쏘게 좀 해달라고. 그래매 막 절을 하셨대요. 그랬는데 그 할머니가 그날 저녁에 가서 일곱 달만에 그냥 확 이렇게 나셨는데 보니까 쌍둥인데 그냥 죽은 애기를 낳대요. 그렇게 아주 어려워서 그냥 좀 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얘기가 살진 않았자. 그래 성왕님이 그렇게 영감하셨대. 그랬는데 그게 그 전장의 피해도 있고 우리나라가 성왕도 별로 안 얘기시 하고 무당타파도 했잖아요. 몇 년도에 일본 사람 들어가고 무당을 그 뭐지? 암튼 무당타파 한 거 책들 읽으셨을걸? 국민학교에서도 그전에 알았었는데. 그런 뒤로 우리 동네에도 그 정주나무를 비고서 다시 심어서 지금 정주나무가 있긴 있는데 그 성왕님이 되게 영감하셨대요. (청중: 그것을 일본 사람들이 버렸는데 그 속에서 구렁이가 이거 만한 게 이젠 판 데로 이동을 하는거여.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 놈을 버가 버리니까. 그런데 모심어 논데 벼포기가 일로 자빠지고 절로 자빠지고 하더라. 거기서 구렁이가 떠나는데. 거기서 나와 가지고 가는 거여. 그 나무에서 무언가가 도를 닦고 있는 거여. 근데 일본 사람들 때문에 자리를 옮긴 거지. 그렇게 그 나무가 그렇게 전설이 있었다는디 그렇하구 일본 해방 되구 나서 나무를 심었는데 지금도 엄청 커, 아주. 그때만 해. 그렇지만은 지금은 그런 미신을 누가 지키나? 그냥 지금은 그런 전설이 없어졌지.

저기 지금은 그 집이 없어요. 삼칸 집을 짓고 사시는데 밤에 이렇게 주무실라고 그러므로 그냥 머리 위에서 쓱쓱 쓱쓱 하면서 막 코똥끼는 거 마냥 둘이가 이렇게 쓱쓱 쓱쓱, 히히히 히히히 이런데요. 그래서 발딱 일어나 보면은 아무 것도 아무 것도 없대요. 그래서 이게 뭘

가 그러다 내가 못 먹어서 허신이 뵈나 하구선은 또 잔대요. 자며는 코를 삭삭삭삭하고 굵구 그냥 뒤키가 그러냐구 발딱 일어나 보면은 또 아무 것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 집터가 너무 도깨비가 장난을 하는 집터라고 해가지고 그 집에서 지레 못살고 그 집은 인제 그 말이 자꾸 전달이 되니께 도깨비 장난하는 집이다 해서 그 집을 뜯었대요. 뜯고서 판 데로 옮겨가서 사시다가 101살에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가 나신 자식이 지금 면암에서 조금 한 20미터 쯤 저쪽 용두리께로 가면은 그 집에 살아계시는데.

【명암리 설화 3】

탕정면 명암리 노인회관, 1993. 12. 26., 유주연, 권은주, 최소정 조사

전해운(여, 61)

쌍바위 이야기, 도깨비에 홀린 사람 이야기, 감장수가 도깨비에게 홀린 이야기

쌍바위가 있는디 거기 그렇게 적혀 있지? (조사자: 예, 그냥 말씀하세요.) 쌍바위가 있는디 그것을 옛날 이 동네에서 쌍바위가 있어가지고서 동네가 부자도 되고 아들도 많이 낳고 그래서 그 바위가 쌍바위가 우리 동네에 좋구나 어른덜이. 옛날에 하구 내려왔는디 아구 그 바위가 참 이름이 자꾸 나구 소문이 났으니께 좋잖아? 그래서 그 바위를 쌍바위라 이동네가 그 찬 조기가 박혀서 참 좋다하고 있는디 몇 년 후에 어떤 할아버지가 이동네 할아버지긴 이동네 할아버지만 할아버지가 그걸 어디다 쓸라고 그랬는지 뒤엿걸 하날 중간을 뚝 잘라 났다구 (조사자: 바위를요?) 응. (청중: 아 그걸루다 절구통하고 맷돌하구 그러는 거여.) 글썽 잘라갔구는 그 후부텀은 동네가 불화가 나구 막 싸도 잣구 그전에는 안 그랬는디 그랬대. 그래서 청춘 과부도 생기고 별짓이 다 났지 동네가. 나쁜 일이 많이 생긴겨. 그렇게 몇 년을 내려 왔는디 몇 년 또 흘렀는디 동네에 어떤 중마냥 보살이 남자 남자중이 여자 짐꾼 하나 짊어져 갔고 오더니 어떤 집을 기웃기웃해는겨. 그더니 어떤 집을 들어가더니 그 집보구 이 뒷동산에 쌍바위(녹음불량) 골진디 집골 옆등에 골이 이렇게 숙여지게 있어 산이 요렇게 된 디가 고기서 당신네 위하면은 좋겠다구 그래서 위하고 싶어 했었어. 그래 참 그 얘기를 했었어. 우리 (녹음불량) 사람이었는디 그 얘기를 했는디 위했으면 좋겠다 위했으면 좋겠다 했는디 밤이라 무서워서 이거 위해질라나 그랬어. 근데 그 집에 딸만 한 너덧 낳거던 그랬는디 혹시 위하면은 아들이라도 날라나 날라나 그러다가 혹시 아이구 이거 남편이라 두 알면 또 반대할지 모르구 어찌구 해서 아이구 해고 싶기두 해구 말고 싶기두 해구 모르게 할 순 없구 한집에서 내외지간이. 그러다가 마음은 있었지 그 쌍바위가 그렇게 좋다는 걸 알구 또 그 중도 그런 얘길 해구 그래서 위할까 말까 하다가 마음만 잇질 았구 있었어, 그 쌍바위 마음만. 거기가 위해진 못했어두. 그러고 났는디 아들을 낳았어. 그이가. 그래서 마음이라도 쌍바위를 그래도 팔세얌고 아이구 거기를 우리가 위해야 좋대는디 좋대는디 그랬어. 그이가 아들을 낳고 잘 되거든, 부자도 되고 잘 되구. 그래서 여기 아까 거기 쓴 거 못 봤어? 밀구녕의 경사났네 경사났네 그거?

김용안 씨 할아버지가 논일을 하신다고 거기 가셨다가 거기를 건너가서 종근네 집에 가서 술을 한 잔 잡숯고 그렇하고 잡에 가신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어련히 가셨으랴 하지 거기선. 아 그랬는디 한참 되었는데 어디서 “좋다, 좋다.” 소리가 나드려. 이렇게 “좋다. 참 좋

다.” 그때. 그래서 이 양반이 목욕을 하나 우째 시상에 이렇게 이리하구 앉았나 발만 밟으는 쪽다리에 이렇게 올라 앉아 그렇게 종다를 부르시더라. “아이구 형님 안 가시고 여기서 여적 계셔?” 그러니께 이게 어떤 놈이 이러느냐구 나 저기 이쁜 색시랑 술 먹는데 왜 방해 놓느냐구 그러드라. 형님 아니라고 하시자니까 어떻게 뿌리치는지 못 이기겠드래요. 그래서 부자가 가서 아들 데리고 와서 모시고 오는데 난닝고 죄 찢어 났대요. 간신히 모시고 왔대유. 모시고 와서는 방에다 인저 사랑에다 모셔 놓구서 “아즘니 형님하고 주무슈. 형민 혼자 주무시게 두지 말고 형님하고 꼭 주무시유.” 하고 가드라. 그래서 인저 정우 삼촌은 이렇게 주무시고 외승모는 이렇게 발밑에서 그냥 잤다. 밤새도록 아무 소리없이 그냥 주무시지 몰달란 소리도 안 하구 그라드라. 그래서 발을 요렇게 가만히 뻗었다. 뻗어서 우리 삼촌 발에 요렇게 다니께 왜 뭘 물 한 모금도 안 주구서 발은 왜 갖다 대냐고 소리를 병약같이 질러서 깜짝 놀랐대유. (칭중: 그때까지 그러면 구신이 안 떨어졌나 보네.) 안 떨어진 건지 우쨌는지 발을 요렇게 되니께 그냥 기겁을 하게 소리를 질르드라. “그럼, 물을 달란 소리도 안 한 걸 쥐?” 그러구 그냥 나왔대. (칭중: 아니 물 드렸으면 정신 차렸을지도 모르는데.) 물도 한 모금씩 안 주고 밤새도록 있겠지 왜 발을 갖다 되느냐고 툭 차더라. 그래서 그때 우리 삼촌이 그냥 흘렸으면은 밤새도록 그냥 돌아다녔을 건디 그 양반이 보고서는 모셔 오기 때문에 괜찮았어. (칭중: 그냥 두면 큰일나요.) 아게게 저기 장승백이 누군가 숭년이 들어서 물 품는디 밤탐을 해가지고 가는디 이구서 밤참을 해가지구 잤는디 암만을 거두고 래박질 소리가 안 나드라. 밤이 새도록 이구서 있었어도 김치국 하나 안얼지르고 고냥 고대로 이고 땡겼대요. 요기만 미친 년마냥 그냥 이렇게 해가지구선 흰한테 일어나서 서서 사방을 둘러보니까 고 밑에서 물을 푸더라유, 냄편이. 그것도 못 느끼구서 그냥 왔다, 글썸. 다가구서는 거기서 거기서 골박 소리가 고기서 나는 것도 못 들었다. 그렇다고 만날 장승백이 노인이 그러드라구.

(녹음불량) 또 지게를 붙잡구 “아저씨 감 좀 팔으슈, 팔으슈.” “아이구 저물어서 나 가야하는디유.” 그러니께 “아 팔으슈, 팔으슈.” 그러드라. 또 감을 몇개 집어줬다. 아 그러구난께 집에두 못 가겠드라. 감 자꾸 팔아서. 또 몇 발짝만 가면 “아유, 아저씨 감 좀 더 팔으슈, 더 팔으슈.” 아 나중엔(녹음불량) 훌쩍하드라. 가다가 집어주고 얼마나 좋아 밤이라도 팔라니께. 팔구서 집으로 얼마 가다가 돈을 돈을 샀는데 정신이 났는지 땀이 흘쭉근하게 나더라. 그리고 집에 갔다. 새벽녘에 집에 가니께 마나님이 어제 인제 오냐고 그러드라. 밤에도 팔았다고 밤에도 감을 팔았다고 그래서 아이구 그러냐고 그러고나서는 아침에 일어나서는 남자가 남편이 일어나지도 못하고 막 헛소리를 하고 앓아서 왜 그러냐니께 “나 지금 생각하니께 어떤 산골 오는디 여자가 다섯 발자국만 오면 감 팔래서 팔구 팔구 그랬는디 지금 생각하니께 내가 홀린겨. 아구 이거 어떡허.” 나 죽게 뵈다구 그러드라. 여자가 맨발로 거길 갔다. 내 친구 엄마여. 거길 갔다. 가서 보니께 감이 군데 군데 떨어져서 있드라. 여자가 죄 산골길이어도 피어났다가 아이구 이거 어떤 놈이 이짓을 했나, 어떤 일인가, 도둑놈을 만나서 이랬나 하구선 피여 놓구선 앞치마를 벌려 갔구 앞치마를 싸서 이구 오는데 빗자락 하나가 있드래유. 입비 그게 쫓아 땡기메 여자 그게 묻으면 그렇대매. 그게 몇 발짝 가면은 해구 몇 발작 가면 감을 앞치마에다 하나를 이구 갔다. 그래갔구 냄편도 해서 일어났다. 그래서 옛날에 여자들이 지금마냥 옷이나 튼튼하게 입었슈? 그러구 옛날에는 볼때면 빗자루 털 잘 깔구 앉았지. 뻘스 한가지에 치마입구 살았으니께.

라. 탕정면 마을 4 (용두리 1구)

1) 조사일정

1993. 12. 16., 황재영 기록

조사 첫날인 이 날은 모산에 위치한 숙소에서 오후 2시 5분에 출발하여, 온양에서 용두리로 향하는 차를 타고 용두1리에 3시 30분 경에 도착하였다. 정거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노인회관에 들어가 보니 마침 사전조사 때 만났던 노인회장 남상윤 씨와 6,7명의 노인들이 있었다. 이야기를 완전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하면서 단편적으로 <장자못 이야기>, <정월 대보름 놀이>, <피꼬리성, 물왕성 이야기>, <돌 비늘 고개>, <국사봉 유래>, <도깨비 방죽> 등을 이야기해 주었다. 고장의 옛 이야기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했으며, 조사자에게 매우 협조적이어서 분위기 좋게 이야기를 듣고 조사를 마칠 수 있었다. 오후 5시 경에 노인회관을 나서 6시에 숙소에 도착했다.

2) 마을 개관

【탕정면 마을1】

337-840 충청남도 아산군 탕정면 용두리

1993. 12. 16., 유지은 조사

탕정면 용두리 1구의 자연 부락 이름은 용머리로서 총 11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총 인구는 419명이며 남녀별 현황으로는 남자 200명, 여자 419명으로 화훼, 농업, 포도 농사에 종사하고 있으며 우체국, 면소재지, 새마을 축산업 협동 조합, 농협 등의 많은 기관들이 있다.

종교는 기독교와 불교가 대부분이다.

3) 구연자

【용두리 구연자 1】

탕정면 용두1리, 남상윤(南相允), 남, 73

1993, 12, 16., 김연아 조사

용두1리 노인회관에서 만난 남상윤 씨는 현지에서 약 19대를 거주한 분으로 머리가 반백이고, 이마가 많이 벗겨졌으며, 가름한 얼굴에 굵은 주름살이 선명하다. 전체적으로 선한 인상을 주는 분이었다. 입을 굳게 다물고 불이 보조개처럼 패였는데, 구연 시에는 손으로 툭툭

바닥을 두들기며 얘기하였다. 첫 구연이어서 조사자들도 이쪽저쪽 기웃기웃 했으며, 얘기할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으나, <장자못 이야기>, <정월 대보름 이야기> 를 들을 수 있었다. 예전에는 이렇게 젊은이들이 얘기를 들으러 오는 적이 없었다며 요새 젊은이들을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용두리 구연자 2】

탕정면 용두1리, 조일환(曹一煥) 남, 67

1993, 12, 16., 김연아 조사

나이에 비해 많이 젊어 보이는 조일환 씨는 주로 화훼 농업을 하고 있었으며, 날씨가 추운 탓인지 한 손은 바지 가랑이 사이에 넣은 채 빼지 않고, 한 손은 발을 잡고 가끔 다리를 떨기도 하면서 구연을 해 주었다. 이런 이야기는 군에서 이미 다 조사를 해 놓았다고 하며 궁지가 대단했다. <피꼬리성, 물왕성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용두리 구연자3】

탕정면 동산리, 류한영(劉漢永)(남, 63)

1993, 12, 16., 김연아 조사

동산리에 거주하며 농협 조합장직을 맡고 있는 류한영 씨는 직업 때문인지 흰 셔츠에 넥타이, 양복을 다 갖춰 입었고, 노인정에서 다른 할아버지들과 얘기하는 도중에 들어왔다. 약간 붉은 기가 도는 얼굴에 굵은 쌍꺼풀이 있으며, 상당히 활동적이었으며, 맨 처음에는 말도 별로 없이 앉아 있다가 주위 분들의 권유로 <돌비늘 고개 얘기>, <둥글고개 유래>등을 구연해 주었다.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이 엿보이는 분이다. 현지에서 17대를 살았다고 한다.

【용두리 구연자4】

탕정면 용두1리, 최병주(崔炳珠) 남, 63

1993, 12, 16., 김연아 조사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얼굴이 검은 편이고, 마른 체구였다. 현지에서 7대째 거주하고 있으며, 구연 시에는 노래를 부르듯 어깨짓도 하면서 말을 급하게 하는 편이었다. 말이 끝나면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진퇴양난',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하며 <내골 유래>, <맹사성이 원을 시험한 얘기>와 <거북이 놀이에 관한 노래>도 한 곡조 불러 주었다. 8월 추석에 안택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말도 해 주었다.

4) 설화 자료

【용두리 설화 1】

당정면 용두리 노인회관, 1993.12.16., 황재영, 김연아, 유지은 조사

남상윤 (남, 73)

장자못 이야기, 정월 대보름 놀이

용두1 앞

(조사자: 할아버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저희 일부러 찾아왔는데…….)(녹음불량) 저기 산에 가머는 그 저수지 있는 산에 가머는 최씨네 무슨 저우가 있다구. 거기 막 장승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녹음불량) 그 산이름이, 장항석의 형님이 형님이 누구지? (청중: 장항석이? 건곤이) 그 사람 명의로 있는 산인데,(청중: 여기서 멀어. 10리 넘어.) (녹음불량) 그 전이는 부자, 부자였었대야. 그 저기가 그 장자못 집터가 부자의 집터였는데, 거 아주 고약했다거든, 그게 저 뭐여, 이 거지가 동냥을 오면, 동냥은 안 주고, 저 쇠똥을 찍어 주고 그랬대. (조사자: 쇠똥요?) 심술이 많아가지고, 거 며느리가 하나 있는데, 그 인제 여자가 마음이 좋았던가 봐. 몰라도 인제 그렇게 곡식도 담아다 주고, 인제 거기가 망할 때, 그 중이 한 날은 저 뒤산으로 가다가 급한 일이 있으면 쳐다보라는 (조사자: 어디를요?) 자기 집터를. (조사자: 아 집터를요?) 그러키 인제 참 가다 쳐다 보니까, 거 저기가 못이, 기와집이 그냥 물, 물 물 구덩에 들어앉아서 못이 됐대. 그 깊이가 저 뭐지? 한 구비가 들어가도 모자른다는 말이 있지 뭐.(조사자: 그 못 이름이?) 장자못이야. (녹음불량) (조사자: 무슨 이무기요? 용은 못 되구요?) (청중: 용이 될라다 못된 게 이무기지.) 이무기가 올라가다가 떨어졌다는 그 저 얘기가 있어.(조사자: 좀더 얘기해 주세요.) 허허, 알아야지, 뭘 알아야지,

정월 열 나흘 날인가 며칠 날인가 왜 죽 뭐 맨들고 잠자면 희어 진다고 (청중: 설날 그믐날 눈썹샌다고 잠자면 정월 보름께 (녹음불량) 그래가지고선 뭐 맨들어서 뭐 또 하고 뭐도 하고 그랬는데 밤에 일찍 자면 눈썹이 희어진다고 왜 잠도 못 자게 한겨. 신발 훑쳐가다 귀신이 (녹음불량) (청중: 며칠 날이지?) 그게 그날이야. 정월 열 나흘날. 더위 팔잖아. 그러고 그날은 농위술을 밤에 밤참을 먹인다고.

【용두리 설화 2】

당정면 용두리 노인회관, 1993.12.16., 황재영, 김연아, 유지은 조사

조일환(남)

피꼬리성, 물왕성 유래

피꼬리성 두개가 있는데 얘기로는 그게 남매가 쌓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를 어려서 들은 거라 잊어 버렸어. (청중: 얘기는 들었다는 거지.) 남매가 그걸 쌓는디 그 어머니가 그랬다던가 그 어머니가 아들을 살릴려고 무슨 죄를 졌는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했다고 그랬다며.(청중: 남한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사는 사람이 장사가 잘되고 한다고 그 남매가. 그 어머니는 아들을 살릴려고 그때만 해도 아들이 저기 하니깐 아들을 살릴려고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게 말이 맞지 않는 걸 말을 못해) (조사자: 아니, 그냥 들으신 얘기만이라도…….) (청중: 아들은 저 잡곡밥을 안주고 쌀밥을 주) 남매를 갖다놓고 성을 쌓는디 아 이

저기가 지겹거덩 남자. 인내력이 여자가 더 많았어) 여자가 능력이 많아 가지구성 에 여자는 말이면 그런 말이 있었다구. 치마폭으로 바위를 안아다가 쌓았다는겨. 그런 여자고 남자는 여자보다 능력이 적어가지고선 이 성 쌓는데 지게 생겼단 말여. 그러니까 어머니가 밥을 해 날르는데 여자는 잡곡밥을 해서 갖다주고 남자는 먹기 쉽게 밥먹는 시간이라도 좀 더 뺏으려고 그러고 남자는 먹기 좋게 갖다주고는 얼른 먹고 쌓게 해주고 그랬는데도 여자가 이겼다는겨. 나중에 그래서 성을 다 쌓고 난 다음에 곧 뒤에 여자가 올려 놓았다는겨. 그래서 여자가 저 가지고(녹음불량) 그런 얘기가 있었던겨. (조사자: 그러면 그게 피꼬리성이에요?)(청중:피꼬리성,물왕성은) 물왕성이 남자가 쌓았다는 모양이죠? 이치가 그럴겨. 그래서 피꼬리성은 매끈하게 쌓고 물왕성은 쌓은 것도 피꼬리성 만큼 못했다는겨. 여자가 쌓은 것이 더 잘 쌓았다는 거지. (녹음불량) 시방 가보면 물왕성은 저쪽에 돌이 흩뜨려져 있고 피꼬리성은 지금도 남아있고 이어져 내리고. 대충 얘기만 이렇게 생각이 나지 자세한 것은 어려서 들은 거라 말이지.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용두리 설화 3】

탕정면 용두리 노인회관, 1993.12.16., 황재영, 김연아, 유지은 조사

류한영(남)

돌비늘 고개 이야기, 둥글고개 유래

그러니깐 이 동네에 (녹음불량) 이것이 용형이야. 저 쪽 끝트머리가 용머리야. 이 동네가 부락이름이 용머리라고 그래. 용 용(龍)자, 머리 두(頭)자 용머리라고. 그런단 말여. 그런데 한 일합방되고 나서 일본 사람들이 와서 인제 그 정치 다스릴 적에 길을 요렇게 돌아다니면서 멀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용두의 옆이니깐 요의 목아지 부분 그 능선 부분을 잘라서 길을 냈다. 그거여. (조사자: 일본 사람들이요?) 일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생각에 그 풍수지리를 믿었거든. 풍수지리 미신학을 좋아하고.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느 동네가면 어디가 좋은지 큰 사람이 나온다고 즉, 인제가 못 나오도록 자른 거야. 그래서 자른 거야. 잘랐는데 거기서 피가 나왔다는 전설이 있는데 그것을 끊었는데 피가 나왔다. 용의 목을 잘랐는데 피가 나왔다 그러는 거야. 그런데 거기 가면은 거 왜 저 운모 (조사자: 돌 이름으로 운모요?) 저기 (녹음불량) 운몬데 그래서 저 고개를 비늘 고개라 했다고 (조사자: 이게 번쩍번쩍 빛나세요?) 그렇지. 용비늘이라는 거랑 뭐 그런 얘기가 전설로 해 내려왔다고 (조사자: 여기 굉장히 그런 예기들이 많네요) 여기 온양 용머리라고 해서 여기 유명할 텐데, 무슨 전설 같은 것이 있음직도 한데 우리가 잘모르는겨.

산봉우리 유래를 한번 얘기하지 (조사자: 이제 드디어 나오시는구나) 봉천리에 농심공장이 있어요. 여기서 한 4 km 지점에 농심공장이 있는데 농심공장 지은 자리가 매봉산 옆이에요. 매봉산이 동그란 산이 빼죽 섰었어. 동그략게. 옛날에 비가 안오고 가물면 비 좀 내려달라고 제사 지내고 정월 보름날. 그 산 이름이 매봉산이여. 거기서 건너편에 있는 산이 그것도 동그란 산인데 조금 둥글넙쩍하면서 크지. (청중:교회 뒤에) 그것이 둥글봉이라 그래. 둥글봉하고 매봉산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하면 한 800 m 떨어져 있을꺼야. 그러고 인제 거기서 저쪽으로 넘겨다 보면 날금터라고 있어. 그 뒷산 상여봉이 있고 날금터가

있어. 인제 그 유래가 세조 임금 적에 세조 임금이 여기에 오셔서 어의정이라고 있지. 어의정 거기 가서 이제 충북 속리산 일대에 정일품 벼슬을 내렸다는 거야. 그 임금이 나졸들을 데리고 산해를 왔었다는 거야. 근데 여기를 이 고장을 자주 내려 오셨어. 이제 한양에서 오셔서 이제 그 사냥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게 매 사냥이래. 개도 데리고 다니고 매도 데리고 사냥을 하는데 이제 거기다 매를 풀어 냈어요. 매를 풀고 꿩을 잡는데 많이 잡았다 이거야. 꿩을 근데 꿩이 날라가면 그 쪽을 날굽터라 하는데 갈데가 없으니깐 꿩이 개가 쫓아가지고 설량은 사냥을 많이 했다는 거야. 그래 세조 임금이 아주 기분이 좋고 그러니깐 이제 그 나졸들과 즐거우니깐 잔치를 베풀 테니깐 실컷들 놀다 가라고 그래가지고선 그 잔치를 벌이고 (녹음불량) 꼭대기가 사방이 딱 보이고 좋아. 거기서 나졸들이 음식 실컷 먹게 해가지고선 맘껏 놀라고 했는데 얼마나 먹어 댔는지 나졸들이 전부 뒹굴러 내려 갔다는 거야. 술취해 가지고 죄 뒹굴렀다는겨. (조사자: 그래서 둥글 고개예요?) 둥글 고개라고 그러는데 그 이제 매봉산은 다 없어졌지만 농심 짓는 바람에 매사냥을 해서 매봉산이라 그리고 저쪽으로 날라가서 개가 쫓았다해서 (녹음불량)(청중: 재밌는 얘기네.)

【용두리 설화 4】

탕정면 용두리 노인회관, 1993. 12. 16., 황재영, 김연아, 유지은 조사.

최병주(남)

내풀 유래, 거북이 놀이에 관한 노래, 맹사성이 원을 시험한 이야기

여기가 있음 직한 게 저 피꼬리성을 저기 할 수 있는 게 뭐냐문 요기는 진터라고 하고 요기는 고마을이라 하고 저기는 내풀이라하고 또 이렇게 장청이라 하고 그런데 그런다고 볼썽에 이 진터니 어찌니 하니 성을 보호하니 된단 말여. 그런데 이 분 얘기로는 저기 지금 유아원 짓는 데로 가면 화살촉 같은 게 돌아 나온다 하거든. 그런데 그런걸 볼 썽에 그리고선 장청이라 하는 곳에 파문 땅 같은데 파면 돌덩이가 나온다고 그래 가지고 그분 아우가 근원은 돌을 무지하게 많이 끄내 냈다고 (청중: 그게 창춘 아니여.) 요기 진터 있고 요기는 내풀이라 하는데 땅속을 파면은 모래 자갈이 쭉 있고 그냥 개울이 흘러가는 것 같다고 하거든. 그리고 돌면 내풀이라 하는데 기와장 같은 것이 나온다고 (청중: 우리 어렸을 적엔 골마을에도 기와장 많이 나왔다고.) 글썽 골마을에 (청중: 내 풀이 아니라 와풀이 아니여. 기와 와(瓦)자 와풀이지.) 맞아 와풀 골마을이라 하는 곳에 기와장이 많이 나온다고. 이제 저 빗살 무늬 이렇게 된것. 그래서 좃어다가 (녹음불량) 올려 냈는데 (청중: 우리 어렸을 적엔 거기서 칩뿌리 켜려고 하문 많이 나왔었어) 그렇게 얇은 곳에 나오는 게 아니여. (청중: 많이 나왔었어. 둥그렇게 생겼다구) (녹음불량) (청중: 집터에서 이제 그 집은 없어지고 나머지 기와장만 이런 것만 남았다 그거여. 부자 동네였다 그거지. 예전에 부자 될려면 기와집 많은 게 부자니깐)

둥그렇게 짚으로 맨들어 그래서 인제 네모반듯한 것을 명석이라 하고 (녹음불량) 사람들이 막대기를 대고선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하나는 동네 이런 저 8월 보름 때 지나가지고 집집마다 돌아 댕기며 사물패들이 함께 이리로 죽 들어가면 그 뒤를 따라 가는겨. 그러면 그 집 미당에 들어가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저 거북이가 춤을 추는겨. 그러면 이제 지는 자기집

에 가서 그렇게 핑과리치고 암택했다고. 암택이 저 고사지내 주는겨. 액을 내보낸다 고사지내는겨. 그 집에서 인자 떡과 술을 대접하여 그집 마당 잔치에 그날 즐겁게 다니며 노는겨. 그걸 거북이 놀이라 했었지. (청중: 쓰러지면 거북이가 배고프다고 술상 차려 달라고 술더 가져오라고 그런 겨. 다 실컷 놀고 막 풍장치고 지신밟기 하는 것 같이 막 돌고 그 집에서 거북이가 막 춤추고 하다가 팍 쓰러진다고. 쓰러지면 이 거북이가 배고파서 못 일어난다고 주인이 술상하고 먹을 걸 차려 놓고 뺑 도는겨. 이집 저집 다니는겨. 즐겁게 노는 거지) 그 동네 액운을 다 쫓는 다는겨. 8월 추석에 했는데 (조사자: 8월 추석예요?) 안 해요. 집이 평안하라고 이 동네에서 했는디 (녹음불량)

서울서 재상이 그 양반은 밭을 매고 농사를 지켰다. 농사를 지켰는디 온양 고을에 고을원을 불러온단 말여. 고을에 정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정승한테 가서 부임왔다고 고하러 온 모양이지. 근데 고을 원님이 재상을 보러 갔더니 가면 그 양반은 밭을 매고 있던 거여. 아 맹정승이 밭매는 분이냐고 밭에 가서 온양 고을에 부임해온 아무개라 인사하면 본즉만즉하고 밭을 매더라 이거여. 맹정승 그 양반이 밭매니 아 뭐라 맹별에 가서 앓을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없고. 정승이 밭을 매니 어떻게 할 수 있어야지. 그래 인저 맹정승이라는 노인 양반은 이 원이 심도가 얼마나 깊은지 시험하는 거지. 말하자면 거 한참 그렇게 세워 놓고 인사하고 고하고 얘기하고 난께 점심상이 들어왔는데 상도 개다리 상이라고 옛날 머슴 일꾼이 먹는 상에다가 콩보리밥 한 사발하고 새우젓 하나 물하고 갖다 줬어. 원을 대접하거든. 아 원이 그거 고기에 무어에 먹던 사람이 당장 내놓으니까 뭐 맹정승이 잡습고 있는데 아, 이 원이라는 지척이 안 먹을 수 없거든. 하, 이걸 먹어야 할지 안 먹어야 할지 진퇴양난이지. 할수없이 한 술가락 뜨고선 상을 물렸어. 왜 안 먹느냐고 하니 배가 불러서 못 먹겠다 하니께, 한참 있다가 정사 얘기를 하면서 이 원이라는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정치 하기는 틀렸다고 그러면서 싸리 가마랑 그냥 퇴임 시켰다. (조사자: 안 먹고 그러니까요?)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해가지고.

마. 탕정면 마을 5 (호산리)

2) 마을개관

【탕정면 마을 5】

337-850 충청남도 탕정면 호산리

1993. 12. 17., 유주연 조사

탕정면 호산리는 35 세대가 살고 있는데 주민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예전에는 전해지는 민속행사가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전해지지 않고 있다.

3) 구연자

【호산1리 구연자 1】

아산군 탕정면 호산1리, 이재천(李在天) 남, 68

1993. 12. 17., 권은주 조사.

둥근 얼굴에 벗겨진 이마, 하얀 피부 등의 좋은 인상에서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구연 시에 특별한 버릇은 없으며 보고 고증할 수 있는 이야기만을 하려고 하며 또한 자신이 본 것만 믿으려고 한다. 품앗이 등 전통례 등이 없어지는 걸 몹시 아쉬워 하며 우리 것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호산1리 구연자 2】

아산군 탕정면 호산1리, 김용희(金龍姬) 여,76

1993. 12. 17., 권은주 조사.

작은 얼굴에 검은 피부, 연세가 많아 주름살이 많고 이가 부실하다. 그래서 구연 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습습’하고 입맛을 다신다. 처음에는 이야기하길 꺼렸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구연 도중 “배운 게 부족해.” “아는 게 없어.” “늙은이라 모른다”는 등 자신감이 결여된 듯하나 본래는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았다.

4) 설화자료

【호산1리 설화 1】

호산1리 마을회관, 1993. 12.17.,유주연, 권은주, 최소정 조사.

이재천(남, 68)

밀장에 관한 이야기

호산, 매곡1 앞

그 좋은 자리를 얻어 쓰머는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정승 상토 쫓고 하머는 관자, 금관좌 옥관좌를 쓰거든. 그 금관자는 정승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 정승이 나올 수 있다. 그 자리에다 쓰머는. 그래서 그 산에 다니면서 명산에 땀기면서 (조사자: 예.)몰래갔다 남이 산이지만 몰래 갔다 쓸려고 그러는 유래가 있어서 직접 내가 들었어.(조사자: 예.) 거 우리 장인의 처남 이지 남매간인데 그 낭반이 시체를 파가지고 와서 밤에 왔더라는 기여. 그래서 가서 불도 없지 잉. (청중: 옛날에 밀장들을 많이 했어, 밀장.) 그게 인저 욕심에 불과한 거지.(청중: 욕심이야....) (조사자: 그럼, 밀장하다 귀신 만난 것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런 거는 없고. 밤에 인저 모르케 또 그런 거 무섭고 한 사람은 그런 거 뭐 귀신이 뭐 무섭타는 사람은 그걸 못하지, 순전이 내가 조상갔다 묻으면 내가 잘된다는 욕심에, 그런 거는 뭐 생각 안하고,(청중:예산 갔는데 예산 응 아 사초하러 갔는데 이렇게 인저 사초를 하는데 (조사자: 사초요?) (조사자: 별초말하는 거다.) 사초라는 건 인제 모이가 인저 허물어졌잖아. 이렇게 이걸 다시 미화작업이지 따지면 모이를 잘 만든다는 거지. 또 때 다시 입히고 이걸 하러 갔는데 집에 와서 죄다 모여서 하는데 아 이거 어째 가보니까 모이 제자리가 이렇게 패였더라고 기다랗게 패였어. 야! 이거 누가 밀장했다고 말이야, 그래서 거길 파봤거든. 그랬는데 한길 되도록

파도 안나오더라고, 그래 인저 그 다음에 결국 꺼냈는데 누가 시체를 갔다 물었더라고 그냥 빼다기만 갔다 물었더라고. (조사자: 그렇게 깊이요?) 그렇게 깊이 파고서 그래가지구선 이걸 집안 집안 아저씨가 파내서 가마에 담아서 질질 끌고가 그 아래 인저 어덕구리 인저 저 사태라 그랬잖아, 그런 구덩이에다 갔다 물었거든 이걸 끌고 갈 적에 뺨대귀가 막 그랬거든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말이야 내 뼈 찾아내노라고 그래서 혼났다고. (조사자: 꿈에요?) 아!꿈 꿈에 그래서 자다말고 벌떡 일어나서 버럭 버럭 질르고 막 이랬었다고. (조사자: 너무 무서워.) (웃음) 근데 그게 인저 남이야 어떻게 됐던지 나만 잘 잘되자는 그 심리로다 그런 짓을 한 거지. 그전 날에 거기는 인저 그 모이 잘 쓰는 집이 산없는 사람들은 남의 종사리 하고 이런 사람들은 산을 얻을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남이 잘된 집이 소문난 집이 몰래 가서 (청중: 몰래 가서 그짓 하는 거지.) 몰래가서 쓰는데 흠을 파내면은 표가 나잖아, 그러니까 이런 그 멍석이나 뭐 이런 포장 같은 거 가져가서 거기다 파 놓구서는 감쪽같이 고대로 미구서 흠 하나 흘린 자리없이 포장을 대고 흠을 거기다 파내놓면 흠을 인자 흔적이 없어지잖아. 흔적을 없애느라고 감쪽같이 그렇게 썼다. (청중: 아주 판판하게. 이게 오래가니까 약간 가라앉았잖아. 그래서 인저 발견해서 그짓 한 적이 있대구.) 그래서 산지기라는 옛날에는 산을 그냥 방치 해두지만 산지기도 없지만 산지기가 그거 산을 간수하는 게 아니라 모이자리 남이 와서 밀장을 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산지기가 둔 것이지. (청중: 그것 뿐이네.)

【호산1리 설화 2】

호산1리 조광운 할머니덕, 유주연, 박은실, 권은주 조사

김용희(여, 76)

소금장사와 여우, 뱀 죽이고 연적언어 부자된 사람 이야기.

백여우가 하얀 여우가 나오더니 “오러버니, 나하고 같이 가자.”고 뒤로 오더려, 훌릴라면 뒤를 뒤를 밝히거든 (조사자: 여우가요?) 응, 여우가 뒤를 밝혀, 훌릴라면 그래서 인저 그 여우를 훌릴려는 게 참 뒤를 밝혀서 오나 보니까 “너 앞으로 와라 너 너하고 질마,” 옛날에는 내 소금장사도 하고 그랬지. 소를 팔아가지구 옛날 노인네덜 소금 팔고 오니까 소금 꼭대기래도 좋으니까 그렇게 오더래, 참 여우가 한 마리가. (조사자:예예.) 그러더니 오더니 하얗게 소복하고서 오는데 “너나 못 간다.” 질마⁷⁾ 위에 올라 앉으라” 그러니까 올라 앉더려. 올라서 질마루다 창, 참 메니까 “아이구, 아파. 오라버니 아파, 오라버니.” 그러더래. “소가 냅다 차면 너 떨어지면 죽는다.” “그럼, 그렇게 해요,” 그런데 개가 짖는 소리가 나거든 동네 주변이니까, 개가 짖으니까 “아이구 오라버니 오줌 마려 내려 내려.” “가만 있어 조금만 더 가면 다간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그짓말이라고 야단이야. (웃음) 그래서 참 “작대기 하나씩 가지고 나오라”고 그랬디여. 사냥꾼덜이 오니까 할아버지 온다고 소금장사 할아버지 온다고 내리니까 “작대긴 가지고 오냐”고 그랬더니 머리 꼬맹일 냅다 움켜잡고서 이놈 얼마던지 패라니깐 누런 콩지 아홉 개 달린 여우를 잡았디여. (조사자: 잡았어요?) 잉! 패서 죽였어.그 여우를. 거 흘리지 안 흘려. 지금은 그런 것도 없다. 얘기 하니까 (청중: 지금은 타고 다니니까...) 얘기 하니까 그짓말이라고 여기 막둥이가 그러는 거야.

뱀이 뭐라나…….잊어 버렸어. 그 생각이 앓나. (조사자: 생각나는 데로만 얘기 해주세요?)
 뱀이가 뱀을 깔고 앉아서 잉 뱀이 죽었는데. (조사자: 뱀이여?) 뱀 배암 뱀은 총을 싸서 죽였
 디야. 죽이고 나서 사람이 살아 나갔는데나 무슨 짐승이 살았는데나 날라갔디여. 그런데 날고
 날고 총을 놓고 오는데 날이 또 저물었디여. 그 남자가. 날이 저무니까, 어떤 집 한 칸이 있
 으니까 집 한 칸에 들어가느라고 들어 가니까 저기 뭐여? 물레질하고 있더라 하얗게 소복을
 하고. 여자 하나가. (조사자: 여자 하나가 소복을 하고 있고……. 예.) 물레질을 하고 앉았더
 라 앉았는데, “나 여기서 하루밤 자고 가겠노라.” 하니까 “주무시고 가세요” 물레질하면서
 셋바닥을 널름널름 하더라. 그 배암이 숫놈이여. 그런데 그래 인저 널름널름 하더니 나 하
 루 밤 자고 가려고 하니까 발써 눈치가 김승 같더라, 그 사람이. 나 가겠노라 하니까 “왜
 가나냐”고. “여기서 자고서 나 우리 마누라를 죽였으니까 당신이 나를 당신을 내가 잡아먹
 어야 한다”.우리 식구 일곱 식구는 뭘 먹고 나 살리느냐 나 피빅(가장)이라 되가지구서 우
 리 식구 맥여 살리는데 뭘 일러느냐고. 우리 식구가 배가 고파서 늘어져서 드러누웠을 거라
 고 우리 식구가. 그러니까 나를 뭘 생전 먹고 입을 걸 줘야 나를 새우지 나서 생전 먹을걸
 줄게 살려 줄라 그러니까 퍽퍽거리며 연적, 왜 옛날에는 요만한 연적 하나가 요만한 연적
 왜 옛날에 요만한 연적 하나가 요만한 연적 연필거기다 물 넣어서 쓰는 게 있어. 연필 쓰는
 거. 그있지 붓글씨 쓰는 그거 하나를 게워 놓더라. 구녕이 니군텐데 “요 구녕은 무슨 구녕
 이냐?”하니까 밥 나와라 밥 나오고, 요 구녕은 옷 나와라 하면 옷 나오고 돈 오르면 돈 나
 오는거구, 한 구녕은 안 일러 주더라. 니 구녕이서. 이거는 뵈기 싫은 사람 너 죽어라 하면
 죽는 거래. 너부턴 더 뵈기 싫으니 펄떡펄떡 뱀이 죽더라. 그래 가지고선 숫놈 암놈 다 죽
 였지. (조사자: 어어.) 숫놈 암놈 다 죽이고 집에 와서 밥 나와라 밥 나오고 옷 나와라 하니
 까 옷이 많이 나오고 돈 나오라니까 돈도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 이웃집에 또 친구 하나가
 있어. (조사자: 예.) 들도 없는 친구가. 요놈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는가? 거기서 나오는 대
 로 땅을 샀거든 그이가. 나오는 대로 땅을 사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구선 살다가 애덜도 참
 끼씩해지고 옷도 잘 입고 하니까 “너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느냐는게” 그래서 연적 하나
 를 내가 뱀을 모르고 죽였더니 암 암뱀 숫뱀 다 죽였다. “그래 어떻게 하면 그래 죽었느냐
 ” 그러더라. 그렇게 죽였다. 연적 갖고 왔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배가 고프니까 밥 나와
 라 돈도 많이 나오고 쌀도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 그래 그 연적을 날 꿰달라고 그러더라.
 꿰졌더니 이놈이 그 놈을 물고 도망을 가가지고 해서 부자됐으면 도로 줘야 되는데 강아지
 두 마리를 맥였데, 강아지 하나 고양이 하나 고양이 하나 강아지 하나를 맥였데. 이 놈의
 고양이가 배가 고파 아옹거리잖아. 주인이 나도 못 먹었는데 너이덤도 못먹고 인제 굶고 앉
 았다. 인저 복이 그만이라 그러, 그걸 어떻게 하면 연적을 찾을 수도 없고 어떻게니 그래 어떤
 놈이 내 친구 하나가 그렇게. 고양이랑 개가 거길 찾아갔어 그 집을 찾아갔어. “예! 너는 밤
 새도록 그 술집 때려부시는 소리하고 나는 경경 짓고 가자.” 담 밑에서 인저 고양이가 물어
 다주는거 개는 은어 먹고 고양이가 물어 주는거 얻어 먹고 그 고양이가 주는 거 얻어 먹고
 암만 연적을 찾으니, 연적을 비고 자더라, 주인이. 비고 자는데 쥐 한 마릴 청하자 고양이가
 쥐를 청해가지구선 “너 가서 저 연적을 물어오면 먹을거 다 싸줄게.” 고양이가 쥐가 고니까
 걸음 걸잖아? 그래 그놈을 걸음을 걸으니까 고니까 눈멀은 척 물어가지고 오더라. 고양이가
 며칠 저녁을 새웠으니까 이 노인네가 비고 자다가 늘어졌지 뭘. 노인네가 비고 자는기여.
 그래니까 이놈을 어떻게 하니 비고서 자는데 물고서 그 놈을 잊어버렸어 인저 이 연적이 저기
 쥐가 그놈을 끌고왔어. 여러 마리가 끌고오는 거지. 얼마나 이 연적이 큰지 작은지 모르겠
 어(조사자:예.) 개가 개를 갖다줬어. “찾아왔다야” “우리 인저 오늘 저녁 여기 담밑에서 자

고 가자.” 고양이랑. 고양이가 개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너도 혼나고 나도 혼났다. 먹을거나 좀 찾아 먹고 가자.” 고양이가 물에 들어가면 귀에 들어가면 죽잖아. 개는 후념을 쳐도 개는 후념을 쳐도. 고양이가 그놈 물어 가지고선 물고 강을 건너오는데, 개를 타고 건너오는데, “물었니?” “물었다.” “물었니?” “물었다.” 아 강 가운데 빠뜨렸어 고양이가. 자꾸 대답을 하니 어떻게. 물었다고. 빠뜨렸어. 근데 그 집 아들이라나 영감이 아무 것도 없는데 고기나 잡으러 간다고 그러더래. 고기 잡으러 가더니 여럿이 친구들하고 가서 잡으니까 큰 잉어 한마리가 잡히더니 뒤에서 고양이가 냅다 채더래 저기를. 뭐여?(조사자: 잉어를요?) 잉어를. 잉어를 고양이가 채들었어 채들어 가지고 ‘인젠 살았다’ 인저 ‘이거나 가지고 쥐인 주고 빠다귀나 발라 먹자.’고. 그래갖고 가서 구시⁸⁾에다 갖다 놓고 아옹아옹하고 가 쾅쾅거리고 마누라 치맛자락을 물고 땡기더라 그냥 물고서 그 마누라 치맛자락을 구시에다 갖다가 “아이고 니덜이 배가 고프니까 어디서 잉어를 한 마리 잡아왔구나” 그래 “배갈라서 니덜주고 우리 먹자.” 저기서 연적이 나오더라. 그래서 인저 그 사람이 부자가 됐데 (조사자: 예.) 그래가지고 부자가 되서 잘 살다가 죽더리여.

이 호산이 산세가 생긴 형국이 범이 드러누운 형국이라 해서 범의 형국이라 해서 호산리가 된 거여. 뒷산이 범 형국이라 해서 그래서 그전 얘기로는 범이라고 그러지. 근자에 와서는 호산리가 된 거지. 또 여기 구릉이 동산리 학교가 있는데, 동산리는 거기 구리라 해서 동산리야. 구리 동자. (조사자: 거기서 그게 많이 나오나 보죠?) 그 유래가 이 근방의 지명이 그런 유래로 해서 동네 지명이 된 것이지. 그래서 여기는 호산리는 범형이라 해서 옛날에는 그 근자에 와서 인저 행정 구역상 호산리가 됐지. 그전에는 근방에서 노인들끼리 지명을 “어디 살아요?” 하면 “범에 살아요, 안범이.” 여기가 호산 1구가 안범이거든. 그러구 여쭙도로 바깥범이, 바깥범이라고 해서 밖범이라하구. 요아래는 또 근자에 그 뒤에 생긴 동네라 구해서 새타범이, 새로 생긴 범이라 해서 새타범이, 저 건너는 예 그 성채가 있어서 성뒷범이. (조사자: 되게 넓으네요?) 응,4동네. 그래서 저기는 지명으로 성호라고 하고, 성호. 여기는 안범인 내호. 그렇게 되어 있지 지명이. 그러구 또 인저 여기 유래가 요기 당집이 있었어요. (조사자: 당집이요?) 요기 요기 당집이 있었는데 미륵돌을 요기다 세워놓고 당을 이렇게 모아 났는데 그 유래는 옛날에 그 어떤 이 동네 오래 살던 노인네가 선몽하기를 꿈에 내가 이렇게 묻혀 있는데 이를 잘 가꿔서 일으켜 세워서 그 마을을 지킴을 맨들면는 동네가 안정이 가져올 것이다 해서 그 양반 꿈에 선몽했다 해서 미륵을 세웠는데 그래 동네에 정월 보름께는 그 동네에서 돌러가면서 목욕 제계 하고서는 예 그 당번이 차례가 간 분은 어디 부정한거 보지도 안하고 외출도 안하고 금하고 정갈한 마음으로써 그이는 선번이 단 날은 차례가 간 날은 외출도 안하고 장애도 안가고 부정한거 보지도 안라고 그 정성을 드러서 지내왔죠. 그러니 인저 그때는 쌀 한 되씩 두 되씩 인제 동네에서 40호면 40호가 걸어 가지고 고사를 협동해서 지냈거든. 그게 인저 그 근자에 일정 때 지내서 이 근래에 와서는 사람들이 귀찮은 생각이 들어가고 그런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 인저 차차 희박해져 가면서 그 (녹음불량) 됐다구. 그래서 인제 하는 사람이 없어요.(조사자: 인제 없어요, 구러면?) 음 그러나께 지금까지 추올때 요기 샘이 있었는데 그것은 암만 가물어도 물이 안 끊어져, 샘이. 웅달샘이 있었는데 물맛도 좋고 수질도 좋고 그런 샘이 있었는데 새벽에 남 안 보는데 그 찬물로 목욕을 하고 그럭하구 제사를 지내. 지금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할래면 어렵잖아. 그러니까 안하게 되었다구. 그래서 그것을 서로 하는 사람이 나서는 사람이 지원이 없으니께 차차로 없어져서 그냥 방치되서 당집도 퇴색해가고 그러니까 절에서 그것을 모셔갔

다구. (조사자: 그 미륵불 ㄴ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응, 절에서. (조사자: 어느 절인데요?) 응, 호산절. (조사자: 그럼 당집은요?) 당집은 없어졌지. 자리가 없어졌어. 그래 그 미륵만은 그 절에서 모셔다가 지내오고 있지. 그래도 그것도 그 안노인네들이 그것을 없앨 수는 있냐구. 동네에서는 자원자가 없으니 저절로 없어졌지. (조사자: 요즘에는 무슨 명절이라고 해서 마을에서 그런 것도 안하죠?) 그전에는 동네에서 정월보름께 해서 한집에서 한되씩이고 추렴을 해서 빠지지 않고 이걸 누가 시켜서 하는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주로 동네 부인네들이 아님 노인네들이 돌아가면서 했던 말여. 장고개 서낭 서낭도 있어서 서낭제도 지내고 미륵고사도 지내고 이러 했었는데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정월 보름께면 동네 일제히 나가서 축제를 축제마냥 했었지. 그게 없어진지가 한 십년? 십년 남짓하지.

인저 날이 굳고 구름이 잔뜩 찌고 그러할제 말이지 큰 불뎡이가 싹 날라와서 딱 백힌단 말이야. 산이고 밭 (녹음불량) 콧 백힌다구. 그걸 뭐라 그러지? 가물다구 그러잖아 왜. 화산이 백힌다고 그러나 무가 백힌다구. 그걸 뭐라 그러나 아, 강철 백힌다 그러지. (조사자: 강철이요?) 응 강철이 백힌다구.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구. 거기 가보면 말야 막 탕다구. 풀이 구 뭐구 싹 탄 자국이 있다구. (조사자: 직접 보셨어요?) 그럼 봤는데 근거가 없잖어. (조사자: 그럼 그게 박히면 가물다구요?) 가물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 일정때 60년 전이나 60년도 넘었지 많이 가물었지, 그때가. 그때 뜬소문에 강철 백히면 그 지역에는 불덩어리가 글루 떨어지며는 그 지역은 말도 못하게 가물었다구. 못보구 들은 얘기구만.

도깨비불이라는 것은 삭악 취익 불을 흘러가면서 가서 딱 보면 없어지구 말구 그런건 봤지. 봤지만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가 없잖어. (조사자: 동네 어른들 중에서 직접 도깨비에 홀렸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건 있지. 왜 그러냐하면 그 지금으로 말하면 심장이나 기가 약한 분들 그런 분들이 술을 먹구서 어디 장에 갔다 오다가 20리 길을 꼭 걸어 다녀야 했으니깐 그럼 고개를 넘어 오다가 그 전날에 버들 (녹음불량) 고목이 있었거든. 길가에 숲가에 이런 게 있으면은 옛날에 어린애들 죽으면은 따에 묻질 않았어. 나뭇가지에 그냥 걸쳐놔어. 고목나무에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은 부모가 있구 그런데 어려서 죽으면 불효다 해서 안 묻었어. (녹음불량) 오쟁이나 이런데 꼬맹이 마냥 해서 가서 나무에 걸쳐놔어. 꼬맹이라고 있어 짚으로 엮은 거. 가마니는 일정 때 생긴 거구 그 옛날에는 기계로 치는 가마니가 아니고 짚으로 엮어서 이렇게 만든 게 오쟁이고. 씨같은거 담은 오쟁이에다 담아다가 나무에다 걸었던 말여. 망우에다 덕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죽으면은 땅에다 묻질 않고 이음대기로 해서 이렇게 덮어 놓으면은 그게 뭐 한 몇 달 가면 썩어 문드러지지 않나 배? 그러면 개들이 거 물고서 뎅기고 더러 그랬지. 그 근방에는 그런걸 매달아 놓은 뒤에는 잘 안 가느 거여. 사람들이 아이들도 그 근방에는 매달아 놓은 또랑(녹음불량) 갈 생각도 못하지. 더군다나 날 곳은날 으시시하잖아. 거기는 거기서 전대앞 똑 같은제 걸어오니까 날 곳은 날 비오는 날 도깨비불이 저녁에 이렇게들 여름 같을때 마당에 앉아 있으면 도깨비불이 짝 간다구 파란게 저기 간다구 보인다고 그러구. (청중: 봐요.) 그런데 내눈에는 여적찌 보이지 않았어.

그러구 또 그게 있지. 우리네가 실남한 것이 그 하루걸이 걸렸다고 그러지. 하루걸이라는 거 모르지? 말라리아야. (조사자: 아 말라리아야요?) 응 말라리아야. 그 전날에는 그 먹는 것도 시

원참고 하니까 말라리아가 물리면 영양이 좋은 사람은 면역이 꽤 이길 수가 있는데 영양실조 걸린 사람은 물리기만 하면은 자꾸 걸리거든. 이 동네 아이들 열이면 열 한 해 여름에 그냥 넘어가는 사람 없으니깐 한번도 안 걸리구. 그러면 한번 걸리면은 열흘씩이라구 그러지. 한집 두집 한번 걸리면 하루 걸러 나씩 가는데 일주일이나 일곱 번이나 여섯 번은 걸러 그해 한 해 여름이 다가도록 앓는게. 꼬챙이 같이 말른다구. 한 여름에도 이불을 그냥 뒤집어 써도 견디지 못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앓고 있으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인제 새벽에 식전에 일찍 일어나서 버드나무 있지? 지금 그애들이 죽으면 매다는 이런디. 그런 나무에 가서 (녹음불량) 이렇게 구워서 붙잡아 매면서 거기다 절하면서 ‘유서방, 유서방’ 불투라구 그런다구. 조금한 아이들 우리네 어려서 우리네 어려서 데리고 가서 아버지나. 그럼 그게 그렇게 싫어. 또 지게 잡아 내버리구 (녹음상태 불량) 재주를 냄긴단 말여. 그 식전에 그저 (녹음불량) 싫은 것만 꼭 가라 그러거든. (조사자: 그럼 병이 떨어진대요?) 그럼 떨어진다구, 그러구. (청중: 근데 내 실제 경험했는데 여름되면 어른들이 머라 말하면은 일찍 해뜨기 전에 일어나서 뒷동산에 가서 할미꽃 있잖어, 할미꽃 잎사귀를 뜯어가지구서 싹싹 비벼가지구서 양쪽에다 틀어 막고 굉장히 독해요, 그게. 피가 나. 옷목에 가서 재주 세 번만 넘구오면 감쪽같이 나.) 꼭 맞는 게 아니라 개중에서 맞는 게야. 또 변소간이, 지금 재래식 변소간이. 그 똥이 너털너털 하고한테 똥나무 잎새를 넣구 그걸 또 훑으라네. (조사자: 똥나무 잎이요?) 응 똥나무 잎새를 그 발판 위에다 놓고 그걸 훑으라네. 싫은 것만 골라서 하라 그런단 말여. 또 소. 멍석 있잖어? 그 멍석에다 사람을 말여. 말아가서 소를 끌어 냄긴다구. 여기 이 속에 사람이 들었잖어 멍석에 말아 사람이 들었으면은 소를 일루 냄긴다구. 그런게 아이들이나 누구는 멍석에 감아서 소를 냄기면은 무서워하잖어. 무서워 소리를 막 지르고 이렇게 냄기면 소가 밟진 앓어, 사람은 절대 안밟아. 발로 슬쩍 친단 말이야. 치면은 그때 깜짝 놀래는 거지똥. 그러구 보면은 싫어하고 놀래고 공포증을 가지면 떨어진다 하는데 근거 없는 얘기지똥. (청중: 근거는 없어, 근거는 없는데 그냥 나.) 열이면 열사람 다 났는게 아니야. 열이면 한 다섯 사람 정도 효력을 보면 그게 만병 통치라 해서. (조사자: 근데 아까 ‘유서방, 유서방’ 하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왜 유서방이라고 그래요?) 버드나무. 버들 유자. 그래서 ‘유서방, 유서방’ 하는 거여.

이 동네에 양조장이 있는데 이 근방에 양조장이 특이한 게 있었어. 양조장이 있는데 양조장이 ‘호산 양천’ 이라는 거야. (조사자: 양천이요?) 응 호산 양천. 호산 그 샘물이 좋다해서 호산 양천. 그 전날에 그 얘기를 우리네가 들었어. 호산물이 좋기 때문에 술맛이 좋다해서. 이혁제라는 분이 (녹음불량) 최석중이 어머니라고 그분이 술장사를 했었다고. 그 전날에는 양조허가도 없이 할 때니까. 술장사를 하다가 자기 자가용으로 술을 빚어 맨들어 팔다가 술맛이 좋다 소문나서 장사가 잘 되니까 이혁제라는 분이 여기서 양조장 하기전에 그분이 면장으로 탕정면에 면장으로 있었으면서 그분이 양조장 술장사 하는게 잘 되니까 같이 합작식으로 해서 부부인연을 맺었다고. 그래서 양조장이 유명하게 발전돼 나왔는데, 일정때. 그 술이 좋기 때문에 이 근방에 호산 지역은 잘 몰라도 천안이나 온양이나 여기서도 호산하면 술맛이 좋기 때문에 다 아는 거여. 그 전날에 술맛이 좋다해서 소문나소 서울로 가서 정종으로 팔아먹었다대, 술맛이 좋아서. 그 전날에 옛장사들이 시골로 지고 다니면서 옛장사들이 댕기는데 판데의 술은 한병 받아먹어야 그렇게 안 취했거든. 그걸루 알구서 여기와서 술을 다른데 슬루 알구서 받아서 사서 먹구선 요 산머리를 못 나갔다는거야. (녹음불량) 느그고 술 잘 먹는 사람도 술 한 되를 받아 먹구산 여기를 나간 사람이 없다는 거여. 술맛이 좋구

독하구 다른데 술보다 자꾸 땡기는거던. 그래서 소문이 난거여, 호산이. 천안이나 이런데 해도 호산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호산술 때문에 나이든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구.

인제 나는 노인네들 증인 그분들한테 들은 얘긴데 삼봉산(조사자: 산 이름이 원래 삼봉산이 예요?) 봉우리가 세새라서. 요기, 저 짝에 있는거 해서 삼봉산인데 삼봉산에는 내 옛날에 얘기로는 금싸라기 서말 있다구 해서 금관자가 서말 있다는 얘기지. 그럼 거기다 내 이름을 쓰면은 벼슬도 하고 후세에 잘 된다구 해서.

1) 요약적 : 의학적

2) 성화대 : 선문대학교의 옛 이름.

3) 약시약시한 : 若是若是한, 이러이러한

4) 연륙 : 連陸 - 육지가 연결되어 있음.

5) 환심 : 換心 - 환장(換腸)

6) 교위 : 교양이

7) 질마 : 길마 - 짐을 실으려고 소의 등에 얹는 안장

8) 구시 : 구유